

2013 통권 제41호

믿음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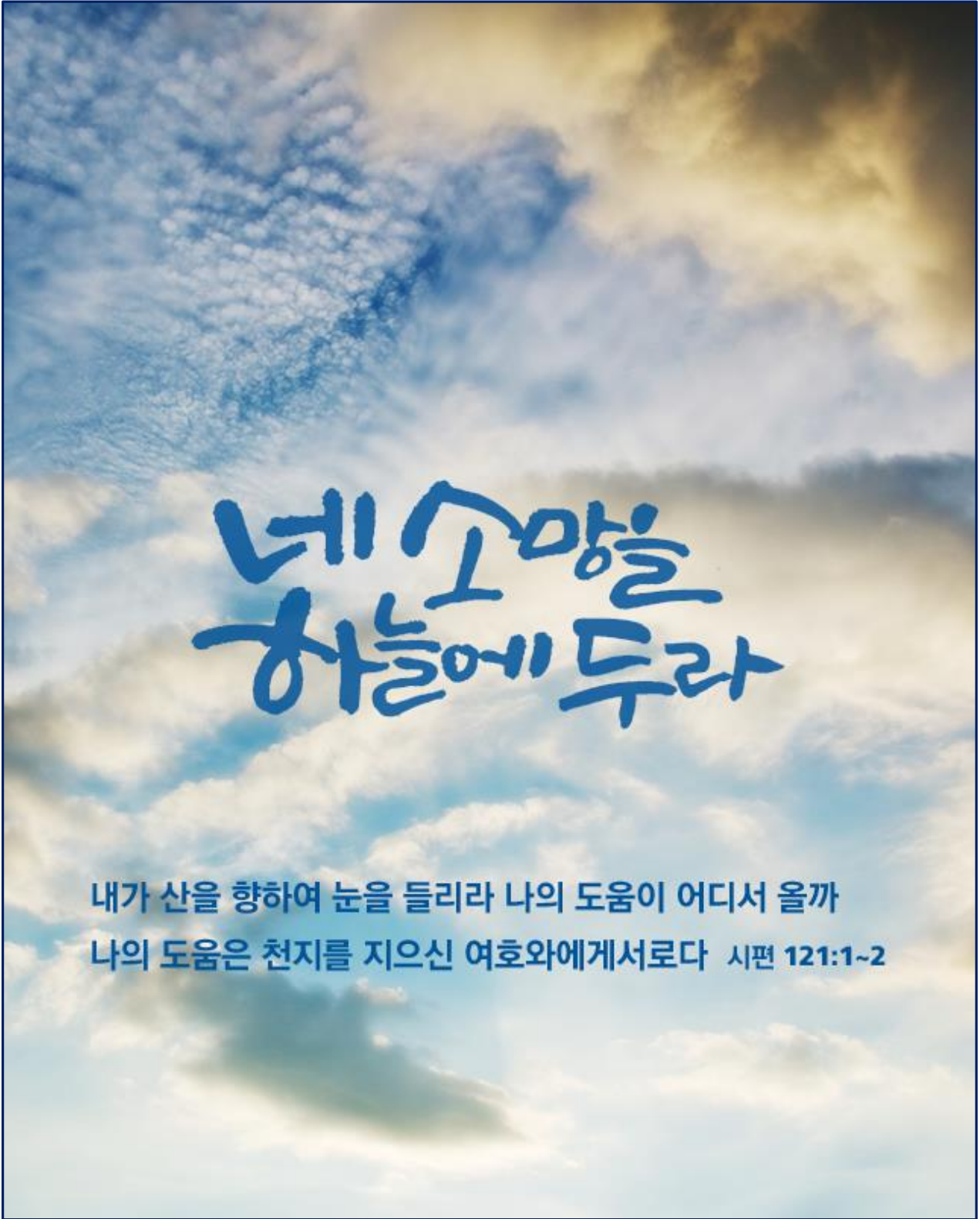
VOICE OF FAITH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담임 김풍운 목사 Rev. Dr. Paul PW Kim, Pastor



네 소망을 하늘에 두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1~2

목 차

담임목사님 말씀	생각하는 감사절	김풍운 목사
교역자 칼럼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성종근 목사
	영 응	이승우 목사
	Christmas Story	정지혜 전도사
선교	2013년 BCPC Youth Group Summer Missions	박반석 목사
	요르단에서	장택규 선교사
	태국에서	하홍종 선교사
	케냐에서	김명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요 순교자인 로버트 토머스	이건상 장로
믿음의 이야기	친구	이병익 장로
	Marathon	김철우 장로
	생각의 비약(飛躍) Flight of Idea	부태형 집사
	53년 만에 만난 그 님	신정희 권사
	어느 맛있고 충족한 주일날	김원연 권사
	먼저 가신 남편을 추모하며	공문선 권사
	천국에 간 남편의 1주기를 추모하며	공문선 권사
	좋은 이웃(Good Neighbor)	부인옥 권사
	일곱 달	박순천 권사
	예루살렘 찬양대	계미경 권사
	진짜 사나이, 진짜 크리스천	이우현 집사
	봉사와 섬김	우형원 집사
	작은 기도일지라도	이호신 집사
	아름다운 헌신	우영란 집사
시	사랑하는 내 교회	허옥선 권사
	늘 당신을 바라보며	김진희 권사
	사진으로 만나는 2013년의 시간들	
	벽스카운티의 새로운 가족들	
	편집후기	
	교회안내	

담임목사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생각하는 감사절(사51:1-2)



담임 김홍운 목사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찌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사51:1-2)

감사한다는 영어 단어 ‘Thank’는 생각한다는 단어 “Think”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생각하는 감사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의 계절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입니다. 히12:3에 보면 “죄인들의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하나님께 받은 각양 선물과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죄중에 있는 우리들,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실의 삶이 힘들지만 거역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구원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를 상징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어와 돈을 요구하자 서랍을 열고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빼앗아 도망치듯 나가는 강도에게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그 강도는 깜짝 놀라며 돌아서서 “그래 고맙다”하며 욕을 하고 갔습니다. 날이 밝자 순경이 그 도둑을 데리고 방 선생님을 찾아와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해서 확인하러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 선생님은 “아,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390원을 주었습니다.(당시에 390원은 큰 돈)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라고 그 강도를 변호했습니다. 순경이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요.”라고 다시 확인하러 하자 방 선생님은 이번에는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까 인사까지 하지 않았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법이 어디 있소?”라고 말해서 순경을 돌려보냈습니다. 순경이 나간 후 그 강도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라고 말했고 방 선생님은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라고 대답하자 그 강도는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말했고 방 선생님은 그것을 허락하여 그 강도는 죽을 때까지 방 선생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어찌보면 강도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감사하라고 가르쳐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죄짓고 사는 우리들을 벌받지 않게 하려고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그 강도처럼 예수님 발아래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빌라도의 뜰에 선 예수님, 갈보리 산 올라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둘째는 지난날입니다. 신16:12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찌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 년에 세 차례 지키는 절기 때마다 이집트에서 종 되었던 때를 돌아보며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규례에 대하여 신16:16-17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일 년 삼 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찌니라”고 구체적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지난달에 LA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1986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살던 아파트와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던 교회 옆을 지나가며 미국에서의 27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었을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한 여집사님은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너무 고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내외는 늘 그 집사님과 어린 남매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후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였고 함께 식당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두 자녀 모두 훌륭하게 커 가정을 이루었고 그 식당은 가 볼 때 마다 주중에도 손님이 줄을 지어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잘 됩니다. 그 집사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 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짹짹이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눈물을 담아 드리 는 모습을 보며 지난날의 내 모습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함께하심을 봅니다.

셋째는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든 중에 살지만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못

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볼 때마다 미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인지를 재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게된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재활원에서 사역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식물인간 환자의 가족은 환자가 자기들을 알아보기만이라도 했으면, 머리를 움직이는 환자는 상체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휠체어를 탄 환자는 지팡이를 짚고 걷기만이라도 했으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자기 다리로 걸어보았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랍니다.” 부흥회에 가서 만난 성도들의 말입니다. 폐암이 간암으로 전이된 젊은 부부는 “이전엔 돈 잘 버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막노동을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젊은 부부는 “아이들 때문에 불평하는 부부는 정신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라고 말했고 13년간 여러번 싸우고 갈라진 교회에 다닌 분은 화목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소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을 위하여 소원처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더 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아침에 10남매와 재산과 건강을 잃은 읍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 모진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읍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였다면 우리도 그러한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아홉가지 감사제목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 결코 원망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2.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 주셨는지 3.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4.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 주심을 5.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한 것을 6.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7.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심을 8.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9. 이와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과 여유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하는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다면 저는 “감사를 심으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불평을 심으면 또 다른 불평을 낳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지난날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심으므로 더 많은 감사를 거두는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1)



성종근 목사

첫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눅 23:34)
둘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셋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요 19:26-27)

넷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 27:46; 막 15:34)
다섯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요 19:28)
여섯째 말씀, 다 이루었다(요 19:30)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일곱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칠언(가상칠언 架上七言)이라 부른다. 곧 예수님의 수난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사복음서에서 찾아 순서대로 모아 놓은 것이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되새기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준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의 영원한 계획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요 능력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성경대로 오심이요 그분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구원자)로서의 죽으심이다(고전 15:3). 예수님은 때가 차매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갈 4:4) 다시 아버지께로 승천할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눅 9:51).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목적지는 예루살렘 밖 골고다(해골의 장소, *The Place of the Skull*)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눅 23:33).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분 생애의 절정이며 그 죽음의 순간에 하신 말씀들은 주님의 사역의 결론적인 요약이라 볼 수 있다. 곧 복음의 결정판이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못박히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수난을 통해 우주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와 무질서와 사단의 영역들에 대한 심판과 사망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나라의 문을 믿는 자들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다.

첫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눅 23:34) 대상 - 아버지와 세상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말씀 중 세 말씀이 기도이다. 첫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모두 아버지를 향한 기도이다. 주님은 수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수난의 중간과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도함으로 드러내

고 계신다. 아무것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끊을 수 없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절망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못박고 있는 것이다.

본문은 누가복음 23:33-34,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제 삼시(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세상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땅에 왔으나 세상은 어둠에 속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다. 피조물과 죄인으로 예표된 군인들과 모여 있는 군중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죽이는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아담 아래 모든 죄의 종이 되어 멸망에 처해 있는 그들과 지금 그 자신을 모욕하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심판하소서;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다.

이것은 구약의 성취이다. 이사야 53:12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마 1:21)이셨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계신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원수를 향한 사랑의 승리요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우리의 편에서 아버지께 요청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변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다. 옷으로 제비를 뽑고(시 22:18 : 눅 23:34), 신 포도주를 먹이며(시 69:21: 눅 23:36) 죄를 즐기고 있었다. 이런 죄인들에게 주님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을 변호하고 있는 기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입을 열어 기도하고 계신 것이다. 이 기도가 없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및 바울의 회심과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다.

둘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대상 - 회개한 한쪽 강도

예수님이 달리신 갈보리 언덕에는 세개의 십자가가 섰다.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고 양쪽에 행악자가 각각 매달렸다. 모두 힘겨운 고통으로 인해 예수님을 비방하였다. 그러나 나중 한쪽 강도는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였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42-43).

예수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그분의 나라로 이끌기를 기뻐하셨다. 죄인인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구원의 복음은 언제나 들려질 수 있다. 백성과 관원들은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눅 23:35)하며 예수님의 구원 기록을 전하고 있었고, 군병들은 희롱하며 예수님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눅 23:37)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해주었다. 심지어 십자가 처형을 내린 빌라도까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기록하였다(요 19:20). 무엇보다도 조금 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그는 들을 수 있었다.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가?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한편 행악자는 자신의 일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옴으로 낙원을 보장받았다. 구원은 지금, 오늘 이루어진다. 지금이 구원과 은혜의 날이다(고후 6:2). 두 행악자 사이에 세워진 이 일 역시 구약의 예언 성취였다. 이사야 53:9,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고” 예수님이 못 박힌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는 인간들의 조롱과 사단의 사악한 계략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악인들의 두 십자가 사이에 세우신 구주의 십자가로 역사하고 있었다.

구원은 길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에 대해 아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적은 지식으로도 그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 주님은 과거의 신분과 행위가 어떠하든 어느 민족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으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행 2:21).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행 4:12). 이 주님께 지금 나오라고, 천국의 소망과 영광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누가는 이 악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직후 때가 제 육시쯤(정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눅 23:44). 하나님은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전 12:1).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강도의 기쁨만이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신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땅에서는 고통 중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맛 보신 천국의 기쁨이었다.

셋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 19:26-27) 대상 - 마리아와 요한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오기 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친과 그곳까지 따라온 유일한 제자 요한에게 개별적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 요 19:26-27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고통과 혼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개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큰 복인지 모른다. 참혹한 십자가 처형장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누구였으며 무슨 이유였을까? 군사들은 의무감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은 사랑함으로, 그리고 구경꾼들은 호기심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을 것이다. 주님은 모친 마리아에게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 주고 계신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 요한을 가리킨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증거한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자리였다.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만약 마리아가 그 죄명을 반대하고 예수는 단순히 목수 요셉과 평범한 주부 마리아 자신의 아들이라고 간청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내 아들이 미쳐서 그런다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내가 내 손으로 낳아 길렀다고 통사정을 한다면 그러나

신성모독으로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마리아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33년 전 시므온의 예언을 떠올리면서, “시므온이 저희를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눅 2:34-35).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지지만 눈물과 애통을 속으로 삼킬 뿐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을 침묵으로 증거하고 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존칭어임) 새로운 나라에서의 관계를 그리고 장남으로서의 인간적인 도리를 그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다. 아직 믿지않는 그 동생들보단 생명으로 하나된 제자에게 생명의 빛을 진 모친을 돌보도록 맡기고 있다.

요한은 죽음의 십자가 처형장으로 따라온 제자였다. 공포와 두려움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받았기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음’을 경험하였다. 주님의 당부는 요한에게 책임감이지만 그것은 또한 무한한 영광스러움이다. 누가 주님의 부탁을 받을 수 있는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그 누구에게 그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유언을 남길 수 있는가? 바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라는 사실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 주님과 요한과의 관계는 빛 안에서의 교제와 생명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관계였다(요일 1:3-4). 주님의 자리를 맡아 섬기는 자리, 주님을 사랑한 요한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교회사의 이야기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십자가 근처의 자리는 형벌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며 또한 증인과 책임과 영광의 자리이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가? 이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다.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은 누가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예외 없이 모범적으로 제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첫 말씀부터 셋째 말씀까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며 본분을 다하시는 신인(神人)으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제 육시가 되매 (정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막 15:33), 십자가에 달리시어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가쁘고 끊어질 것 같은 뼈와 근육의 아픔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 쉬며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다음)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2)

성종근 목사

첫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눅 23:34)

둘째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셋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 19:26-27)

넷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마 27:46; 막 15:34)

다섯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요 19:28)

여섯째 말씀, 다 이루었다(요 19:30)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위의 네 말씀은 죽음 직전 주님이 이어서 말씀한 내용들이다. 6시간 동안 모든 진액과 피를 쏟으시는 창조주의 죽음 앞에 피조물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움이 제 육시(정오)부터 제 구시(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가운데 제 구시에 마지막 힘을 모아 외치시는 주님의 네 마디 말씀을 들어보라.

넷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 27:46; 막 15:34): 대상- 하나님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다. 캄캄한 어두움을 찢고 들려진 외마디 단말마의 절규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마저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피흘리심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히 9:22). 그리고 그 안에 피어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죽이시기 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게 만드신다.

이제 창조 이래 인류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찢어지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된 것이다. 독생자의 부르짖음 마저도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을 바꿀 수 없어 그 아들이 운명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인간의 막혀버렸던 장벽의 예표인 지성소의 휘장을 양손에 들고 찢을 준비를 하고 아들의 부르짖음에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운명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기쁨의 순간이 이 기도에 담겨 있다.

이 말씀은 일찍이 다윗의 기도였다. 시 22: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다윗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 미리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셨다. 암흑 속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나 염소처럼 하나님 앞에서 외면을 당하고 드러짐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하나님이 대속의 심판을 우리 대신 주님께 내리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했다. 주님의 부르짖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의 해설자들도 그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도 시편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부르느니 두고 보자고 말한다. 성경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도 무지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아셨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인류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 지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다. 이 기도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세상에 고발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간절한 기도였다.

다섯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 19:28): 대상 - 자신

본문은 요19:28-29,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것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염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전날 성만찬 후 겻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하시며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시고, 대제사장 앞에서의 수난을 받으셨다. 빌라도 앞에서의 채찍질은 가죽 끈의 끝에 납덩이가 두 개씩 달린 무거운 채찍을 통해 살가죽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모세혈관과 근육이 파괴 되는 혹독한 채찍질이었다. 시편 기자는 그의 고통을 “얕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고 묘사한다(시129:3). 로마 군병들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기 위해 갈대로 머리 깊숙이 가시 면류관을 찢어 넣었다. 또 다시 다량의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 내렸다. 무거운 가로대 십자가를 지우고 끌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질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로마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그리고 아홉 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세워졌다.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트루만 데이비스의 현대 의학적 관점에 따르면, 못 박힌 팔과 발의 경련이 온몸의 근육 경련으로 확산되어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셨다. 팔에 몸무게가 실리게 되자 가슴근육이 마비되고 늑간근육도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공기를 폐 안으로 흡입할 수 있지만 내쉴 수는 없었다. 짧은 호흡이라도 하기위해 예수님은 몸을 위로 밀어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셨다. 드디어 이산화탄소가 허파와 혈류에 채워지자 근육의 경련이 부분적으로 가라앉았다. 발작적으로 그분은 숨을 내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고 산소를 들이마셨다.

시편의 기록처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이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시22:14-15). 이렇게 우리를 위한 질고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계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이루어 내심으로 육신으로 어떻게 영을 좇아 살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성령의 생수이신 주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주님께 서 저주의 목마름을 경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7:38). 그분의 지옥 같은 목마름(눅16)으로 우리가 생수의 강을 영원토록 마시게 되었다. 천국에는 목마름이 없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 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22:17).

여섯째 말씀, 다 이루었다 (요19:30): 대상-하나님, 사단

얼마나 기다리셨던 순간이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대속의 수난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다. 본문 내용은 로마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의 입에 대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 19:30).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속하여 사망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죄 값을 갚기 전에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히 9:22)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53:6).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창 3:15에서 예언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을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히 10:7)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히 10:10).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고통에서 죽음의 순간에 울려 퍼진 복된 소식이다. 승리의 외침이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tetelestai)는 다 이루었다. 상인들이 빚을 다 갚거나, 거래를 끝냈을 때, 하인들이 맡겨진 일을 다 완수하거나 예술가가 그림을 완성했을 때 쓰는 말이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요 17:4). 더 이상 죄에 대해 사단에게 진 빚은 없다. 주님이 다 청산하셨다. 반틸(Vantil)은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임무 완성의 보고와 사단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한다. 옳은 말이다.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두 손에 붙잡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셨다. 마태와 마가는 그리고 누가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순서적으로 약간 다르게 기록한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 27:50-51; 막 15:38) 즉 운명 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보나 누가는 순서를 바꾸어 “때가 제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눅 23:44-46). 즉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으로 기록한다. 큰 문제는 아니다. 네 번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어두움의 3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영혼의 번째가 다 드러졌을 때 버리심을 당했고, 주님은 지옥의 갈증으로 인해 목이 말랐으며 자신이 완전한 힘없는 번째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알았다. 속죄의 임무가 완성되었고 드디어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도록 허락받아서 승리의 소리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운명하셨다. 곧 예수님의 다 이룸의 사역은 하늘과 땅에서의 사역을 함께 마감하는 단추였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죄를 위한 제사는 없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18-20).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롬 8:1-2)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대상 - 하나님

예수님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한 번 몸을 밀어 올리며 다리를 뻗고 가슴을 열어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운명하셨다. 본문 눅 23: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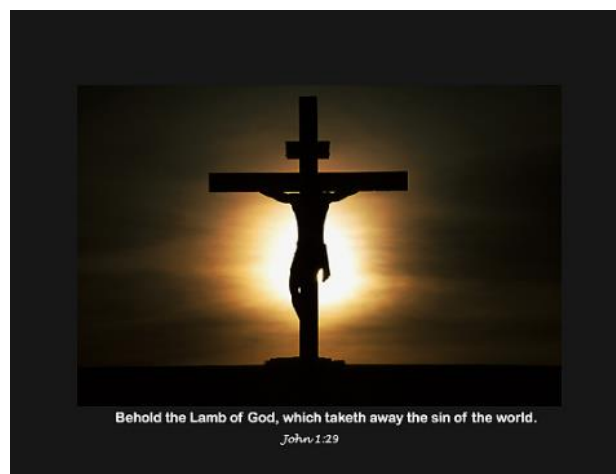
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기록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의미있게 해준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가는 호흡이 끊어졌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최대 인생의 문제요 숙제인 죽음 이후의 문제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올바른 진리를 보여주신다. 죽음은 더 이상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호흡과 말씀을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마치셨다. 고난의 시작에서도 중간에서도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보여주신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생명에서 끊어낼 존재는 없다. 예수님은 인생과 죽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운명하셨다. 이 말씀 역시 시편 31:5의 성취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그 영혼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완전한 보호이다.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아버지 품이다(요14:1-2).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적 인간적 으로는 이룬 것이 없으나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승리함으로 죽으셨다. 그분의 승리는 사흘 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금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의지할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갈보리에 선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유일한 초청장이라고.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구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영웅



이승우 목사

지난 1월 20일에 9살이며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타일러 두한(Tyler Doohan)소년이 불길에 휩싸인 트레일러에서 잠자고 있던 6명의 가족들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을 놓고 온 미국이 애도하며 소년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뉴스와 신문에서 보도하였다. 특별히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준 것은 타일러가 4살과 6살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가족들 6명을 잠에서 깨워 밖으로 무사히 피신시킨 다음에 자신은 아직 나오지 못한 할아버지와 삼촌을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미 6명의 가족들을 구한 타일러는 충분히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소년은 한쪽 다리의 장애가 있는 삼촌이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들어갔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소년은 삼촌의 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소방관들은 아마 소년이 삼촌을 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셨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바치는 것만큼 큰 희생과 사랑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소년 타일러는 진정 ‘영웅’이라고 말해도 전해 억지가 아니라고 본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한 인물들에게 감동하고 그들을 칭송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로 늘 많은 영화들이 제작된다. 아주 오래 전에 “Deep Impact”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다. 영화의 내용은 미확인 혜성이 지구를 향하여 날아오는데 만약 충돌하게 되면 지구는 파멸의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주선을 탄 몇명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지구를 구하게 된다. 이들은 모든 방법이 실패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마치 자살 특공대와 같은 모습으로 핵폭탄을 장착한 우주선을 비행하여 혜성의 중앙부로 날아가서 폭발하므로 혜성을 산산조각을 내므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게 된다. 비록 영화이지만 자신들을 희생하여 가족들과 다른 수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내용은 보는 이들에게 언제나 감동을 선사한다.

영화를 보아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감동하게 된다면 영화가 아니라 누군가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므로 온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고 칭송받

아야 할 일이 아닌가! 성경은 이러한 일을 실제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단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하여 준다면 이 세상은 그를 영웅이라고 칭송하며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감동한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나 높이 칭송해야 하는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영원한 참 '영웅'이시다.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

[마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10: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Christmas Story

Pastor Lisa Chong



What happens when Charles Dickens, an anonymous Korean author from the late Chosen Dynasty, and the authors of the Four Gospels come together? We get “Heungbu and Nolbu: A Christmas Story”, a play based on a Korean folktale, with Ebenezer Scrooge’s three ghosts (angels) narrating Christ’s story.

“Heungbu and Nolbu: A Christmas Story” is not a story about “good” Heungbu and “bad” Nolbu; it’s not a story about the good deserving blessing and the bad deserving punishment; it’s a story about God, about how He provides for his children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ir needs. In our version of the Korean folktale, God provides Heungbu and his family with materialistic necessities while He provides Nolbu and his wife with spiritual awakening. Although the original story focuses on Heungbu, who receives riches from a swallow for having done a kind deed, we wanted to focus more on Nolbu, for we



believed we could relate more to Nolbu than to Heungbu. Arrogant, proud, and self-righteous Nolbu—although we would like to see ourselves as Heungbu, in this broken world, it would be more honest to say that so many of us can see ourselves in the older brother. Nolbu awakes from his delusion not because he gets his negative consequence for being so selfish and uncompassionate, but because he meets Christ through the Squash Angels. Nolbu is the Apostle Paul who made Christ his master after meeting Him; he is St. Augustine who turned his heart away from himself and the world after putting his trust in Christ; he is Martin Luther who came to understand that his salvation did not come from himself, or from the church, but it rested in Christ alone (Ok. Maybe it’s a bit of a stretch comparing Nolbu to Martin Luther). We all know that Christmas is a time to celebrate His birth, but why? We wanted to tell everyone through this play that Christ came to rescue us from this world and ourselves, to mend our brokenness, and to restore

us. He had a reason for coming, and just like us, we believed everyone else needed to be reminded of this truth: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not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that we should walk in them” (Ephesians 2: 8-10).

Written by Lisa Chong

My sincere gratitude goes out to our Elementary teachers, who gave me the initial idea to use the Korean folktale, who helped me to revise the script, who created the music and the dance, who gave up their personal time to practice with our children, who supported me with encouraging words and prayers; to our Elementary parents, who cooked lunch and dinner for us on practice days, who made the costumes and the backdrops, who drove their kids to practice for weeks and weeks, who volunteered to play the instruments; to our Elementary children, who came to practice week after week, who were patient with us teachers and parents who were cranky at times; and to our Father God, who gave all of us the opportunity to work hard together for His Kingdom.





2013 BCPC YOUTH GROUP SUMMER MISSIONS

Pastor Peter Pak



"Now there are varietie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and there are varieties of service, but the same Lord; and there are varieties of activities, but it is the same God who empowers them all in everyone. All these are empowered by one and the same Spirit, who apportions to each one individually as he wills. For just as the body is one and has many members, and all the members of the body, though many, are one body, so it is with Christ." I Corinthians 12:4-5, 11-12

The summer of 2013 marked the end of five tremendous years in Moreno Canas, Costa Rica, and marked the beginning of new opportunities in ministry and missions. The transition was at times difficult, but the Lord's faithfulness and grace were constants in the midst of it all. When the youth group announced that the Lord was calling us to the inner city of New York City, there was some hesitance from the students. They had been used to the idea of missions as something foreign, far away, and exotic. Through the Lord's guidance and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we felt God was opening our eyes to the needs of the people near to us. With that, we set out to serve the Washington Heights community of NYC. Through contact with Mission to the World, the youth group was connected with Operation Exodu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seeks to challenge and empower students and parents to embrace and use education as a means of changing their community and attaining success. Washington Heights consists of a mostly Hispanic population where 70% of residents are of Dominican descent. Washington Heights is a largely low-income community where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is about \$30,000.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the average income of New York state, which is \$51,000. Consistent problems in the history of this neighborhood such as drugs, crime, and unemployment are perpetuated by a cycle of low economic status and a lack of education. There is a 14.2% adult unemployment rate, and 31% of residents live below the poverty level. In addition, this neighborhood experiences very high teenage pregnancy rates of 12%. The hope for improving the safety of this neighborhood and its residents lies in the children of this community: By staying in school and seeking higher levels of education, the





younger generations could help move this community towards higher paying jobs and a generally more stable state. Operation Exodus, which was established in 1988, pioneered the vision and type of care that many other organizations have since adopted for the community of Washington Heights. The difference however is that Operation Exodus understands that education is only but one component of change, and there will never be true change without the gospel. We were able to see this so clearly in our time with the staff and students involved with Operation Exodus. By the grace of God, Operation Exodus has been able to expand to 3 other neighborhoods, and now there are 4 OpEx locations in NYC.

We are so thankful for the ways in which God has blessed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Through missions, we are reminded of the Lord's favor and blessings on us, and we are challenged and moved to bless others for we have been blessed. Kathy Mejia, the coordinator and director of Operation Exodus in Washington Heights, was constantly sharing with the team how encouraged she was to see our team's willingness to serve, love for the children, and passion for Jesus. Even before the start of our second day there, she asked if we could come for 2-3 weeks next year. The students also shared their feelings with our team, we learned things that not only broke our hearts and lead us to tears, but we learned another important lesson: the Lord works through people just like us. God is moving, working, transforming people and communities, and He chooses to use us to do it.

We do not know what is in the horizon for the youth group and for our church. We do not know what God has in store us, but we are waiting and praying. We believe that what God has for us is bigger and more radical than what we could ever imagine, and we are excited for 2014.

2013 BCPC YOUTH GROUP SUMMER MISSIONS TEAM

Pastor Peter Pak, Pastor Seth Choi, Audrey Baik, Gina Bartz, Esther Cho, Isabell Choi, Kristine Chung, Joe Ham, Inhye Hwang, Joanne Hwangbo, Rebecca Kim, Celina Lee, Jon Lee, Johnny Lee, Leah Lee, MJ Lee, Angela Park, Daniel Seong, Josh Seong, Anita Shim, Lisa Sul, Jin Yang, Josephine Yi



요르단에서 전합니다.

디모데/캐롤 장 선교사

사랑하는 가족들께,

요르단은 한국과 반대로 우기가 겨울에 있습니다.

몇 주째 언덕 위의 클리닉이 안개에 사라졌다 나타나곤 하다가 드디어 을씨년스러운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치고 있습니다.

월동준비로 디젤도 비축해 놓고 베두인들에게 배달할 나뭇짐들도 마프락에서 공수해와 포대로 쌓아 두었습니다.

아기예수 탄생의 큰 명절날은 150 명 가량의 손님들이 축하하러 옵니다.

여인들은 클리닉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고 남자들은 저희 집 손님방에 앉았다 갑니다.

하루 종일 다과를 접대하고 성탄의 의미를 나누는 중요한 날입니다.

수백 개의 쿠키를 저장하느라 개미처럼 저녁시간을 달콤한 향기 속에 곁고 있습니다.

벌써 3 개월째 *Girl's English Club* 을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2~6 학년 아이들, 다른 한 주는 9~11 학년 소녀들이 찾아 옵니다.

그 전에 있던 나라에서는 생각도 못할 규칙적인 아이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영어에 대한 크나큰 관심과 저희 팀에 대한 신뢰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깁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이런 특별한 모임이 마냥 신나고, 노래와 공작시간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반면에 고학년의 경우 시험에 도움이 되는 문법을 배우고자 하며 사이사이 들려주는 성경이야기이나 찬양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들의 작은 세계관이 이미 새로운 소식에 저항하며 고착된 것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며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는 지경을 넓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매일의 일과에 우선 순위가 밀리게 되기에 세 시간 운전으로 찾아가는 마을들, 일꾼들이 상주하지 않는 계곡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거리감을 두던 식구들이 이제는 웅기종기 앉아 대화를 나누고 아기들도 슬금슬금 다가 옵니다. 오가는 길의 안전과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넬모레 14 일이면 죠가 방학으로 3 주간 집에 옵니다.

설국에서 바람 부는 광야로, 기숙사에서 부모의 품으로의 변화가 좋은 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13 년 12 월 11 일

장 디모데, 이 캐롤, 죠 올림

케냐에서 선교소식 전합니다.

김명수 선교사

존경하는 김풍운 목사님과 벅스카운티 성도 여러분께 2013년 12월 중순 선교소식을 드립니다.

케냐정부의 회년 플래카드

Kenya@50, 케냐는 지금 완전한 축제 분위기입니다. 12월 12일이 영국식민지 통치로부터 독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회년(jubilee)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인 13일도 공휴일로 만들어서 12~15일까지 쉬고 그 뒤로 성탄절 휴일(25~26일)과 새해 휴일까지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Jubilee는 구약(레위기 25장)에서 땅과 노예의 해방과 반환을 하는 7번째의 땅의 안식년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든지 50주년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박 속에 있던 노예들이 풀려나며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는 Jubilee를 맞이하는 케냐는 무엇을 위해서 즐기는 것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와 교육의 예를 들어가며 해방 후의 발전을 축하하지만 더욱 늘어난 부정부패와 굶주림에 빠진 국민들을 보면서 축제 보다는 회개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년 축제에 나선 부족민들

Kenya@50, Jubilee, 회년의 축제를 통하여 저희들의 선교지 삶을 되돌아 봅니다. 저희 부부가 케냐에서의 삶은 안식년을 제외하고 합치면 5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한국, 케냐를 합쳐서 케냐에서 살아온 시간이 제일 길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보냈기에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를 당해서 인질도 되어 보았고,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수류탄을 차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도 있었지만 사역을 통한 기쁨이 더 많았기에 삶을 되돌아 보았을 때 후회가 없는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37:4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선교에 있고 선교를 행함에 기뻐하니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Jubilee의 삶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쁨의 찬양을 현지인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이로비에서 강의사역과 소말리 모슬렘사역을 하고 일주일에 2일을 맞사이에 내려가서 목회자훈련과 교회개척, 건축 그리고 학교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맞사이 땅에 소박하고 조그마한 살림집을 짓고 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1주일에 2일을 나이로비에서 강의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제가 직접 건축을 해서 이 회년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뻐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의사역을 통해서 변화하는 학생들을 인하여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목회신학과정(MDiv, 히브리, 헬라어문법, 성서해석)외에 기독교세계관과 선교학을 추가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역이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고 자신들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케냐 안에 있는 미전도 부족을 향한 선교를 시작한 학생들, 세계관의 이해로 타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신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해소되지 않은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목회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주제들을 다루면서 깊어가는 신앙을 볼 때에 바로 저희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기쁨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인 *Jubilee*의 축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라고 말한 대로 밀러의 세계관 슬로건이 학생들의 삶과 사역, 선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처럼 저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서도 희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문법과정 학생들

또한 저희들의 선교경험을 가르침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현지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선교과목 학생 중 1 명이 나이로비의 대형교회의 선교목사인데 이번에 투카나 선교사 2 명을 파송하면서 저에게 여러가지로 조언을 부탁해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현지인의 문화적응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보다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과 언어소통 문제등을 위하여 투카나언어의 오디오성경을 소개하고 태양열충전 통독기를 전달하면서 복음을 위한 행보를 나누는 중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투루카나지역은 가족같이 친하게 지내신 선교사님이 사역하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서 더욱 이들 현지선교사에게 대한 사랑과 중보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선교지에 있든지 마태복음(28:18-20)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양육의 사역인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강의사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며 선교사인 우리들이 하지 못하거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현지선교사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사역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스스로 미전도 부족의 선교를 선교사를 파송하며 해나가는 현지교회를 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 맞사이교회들과 선교센터 안의 학교운영이 주 안에서 세워진 목적을 이루며 잘 운영되고 있어서 기쁘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신학과정 학생들의 모습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Jubilee* 의 기쁨으로 선교지에서 살아가도 삶의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예로, 나이로비 샤펅센터의 테러가 끝이 나고 얼마되지 않은 9 월말 새벽, 혼비백산한 이미에 선교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온 집안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굉음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중에 갑자기 400 볼트이상의 고압전류로 인해서 집안의 전구, 컴퓨터, 냉장고등 벽에 있는 콘센트로 꽂혀있는 전자제품들이 소리를 내며 타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전기와 물의 포기가 있어야 삶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안전하지 않는 곳이 이곳의 현실이다 보니 어려움은 주변에 항상 있지요. 지난 11 월 3 일에 케냐 북부에서 100% 일식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일식이 일어나는 장소로 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나온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백인 3 명에 어린 아이들 그리고 군인 3 명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의 경호를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에서 관광을 해야 한다는 현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절실히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껏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의 손길을 받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으로서 이제는 맞사이 지역에 내려가서 살아야 하기에 이 보호하심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이 선교사가 양육한 맞사이 목사 부부와 함께...내년부터 이웃이 되는 가족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가오는 성탄절과 새해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동부아프리카 케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2013 년 12 월 11 일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케냐-소말리아와의 전쟁으로 케냐 안에서 모슬렘들의 테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현지인들과 저희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 나이로비와 맛사이의 강의 사역, 선교센터 안의 학교사역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맛사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택과 오지 미건축 5개 교회건축, 그리고 소말리 통독기 제작에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가족 모두의 건강과, 학업과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도록, 특히 장녀 예인이가 1 년의 이라크-쿠르드 지역의 봉사를 잘 마치고 이제는 뉴욕에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태국에서

하홍중 선교사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도 한달 여 남겨놓고 있네요. 시간이 참으로 빨리 날아가는군요. 올해도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와 후원 속에서 저희들이 이곳 태국에서 만 7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저희들과 함께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기도편지에 적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주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신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다시 감사드립니다.

태국에서 하하네(하홍중, 이해정, 규진)드립니다.

기도편지를 첨부해 드립니다.

하하네 이야기 47호

통메와 라우 마이 프럼, 때 프라짜우 송 뿌라탄 프라쿤 켕 프라운
(저희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잘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쓰시고 당신의 일들을 맡기고 감당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제 피사눌록에서 만 2년이 되가면서 저희들이 관심을 교회지도자 발굴, 훈련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데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은혜로 저희 사역의 기초를 다져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합심기도가 계속 더해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준비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한 사역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격려가 늘 함께 있어서, 저희들은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선교사역을 함께 이뤄가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요즘 기도제목들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성탄절 복음 전도 준비(일반 대학생들, 한국문화센터 회원들, 교인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세 그룹을 대상으로 복음을 좀 더 깊이있게 전하기 위해서 각각에 맞게 내용을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래수안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학교 안에 부스를 세워서 저희 센터를 소개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의미와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해주고,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처를 주는 학생들에게 수건(성탄 선물로 준비한)에 저희 센터 연락처를 새겨서 선물로 주고, 센터로 연결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일반 대학생들을 위한 성탄선물로 수건 500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교인들과 함께 이번 주부터 성탄절 특별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준비하면서 교인들이 먼저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협력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센터 회원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쿠키를 함께 만들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자가 만든 쿠키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새롭게 알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자가 다른 회원들을 위한 성탄선물을 준비해 와서 서로 교환하는 시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좀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물건 중에서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귀중한 물건들을 다른 교인을 위한 성탄 선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설명카드와 함께 포장해서 나눌 것인데, 이처럼 귀중한 선물들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한국문화센터 현황

현재 센터는 회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등록한 회원들은 1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 실습 나가고, 대학교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잠시 쉬는 학생들, 그리고 그만둔 학생들 등등이 많아서 지금은 70명 정도가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간신히 쫓아오는 학생들도 있고, 한국 연속극을 재미있게 보려고 공부하는 회원들도 있고 목적도 수준도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그들에게 매주 한국 음식(김치찌개, 김밥, 부대찌개, 제육볶음, 돼지갈비, 닭도리탕, 잡채, 짜장밥 등등 이제 이 선교사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을 해서 먹이고, 그들과 함께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관계집을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특히 모든 관계에 있어서 먼저 좋은 관계집이 맺어져야 다음 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좋은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공부로 초대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저희들을 향해서 활짝 열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들을 성경공부로 초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3. 한글캠프의 효과와 소망

한글 캠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태국 학생들의 마음을 빨리 열어주고 학생들을 성경공부로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태국 대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과 하루 종일 같이 몇 일씩 지내면서 말을 가르쳐주고 자기들 편에서 이해 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마음을 빨리 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글캠프를 한 학생들은 저희들에게 더 빨리 마음을 열어주어서, 저희들이 성경공부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그들이 한국사람 한 분과 짝이 되어서 하루 종일 지낼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원하는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해서 친절한 크리스천을 통해서 정성 어린 도움을 받으니까 교회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한글캠프의 자기 짝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주일예배에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글캠프를 통해서 저희 센터 회원들이 성경공부로 들어오는 효과가 좋으니까, 저희들은 한국분

들이 여러 팀 이곳에 단기선교로 오셔서 저희 회원들을 위해서 한글캠프를 해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단기선교계획은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 센터회원들을 위한 한글캠프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대학생들과 성경공부

주일 예배에도, 토요 기도회에도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꼭, 치우치우, 혼키, 따이와 매주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년 넘게 가족과 사회로부터 구체적으로 교육 받아온 불교가치관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창조의 기독교 세계관과 그들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인간의 죄와 사망, 율법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여러 성경 내용으로 여러 달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과 사회가 강하게 만류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말씀 체험과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울타리인 가족과 사회를 넘어서 확신속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용기있는 자리까지 나오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군이 되어서 미래 태국 교회의 좋은 기둥같은 지도자들이 되도록요.

5. 2 가지 셀 그룹 모임의 시작

일반인 셀모임— 교인들 중에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중에 하루 저녁 시간에 모여서 간단히 먹고 성경공부와 기도로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모임을 위해서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녹, 마리니, 프를, 꺾이 대상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생활도 크리스찬 생활로 바뀌는데 도움을 잘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제자훈련으로 그리고 지도자 훈련으로까지 잘 발전되어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생 셀모임— 저희 교인들 중에 사리야와 므이가 대학 1학년입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영향력이 커지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저희들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아가서는 대학교 안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룹 모임을 위해서 대학생 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들의 친구들 여러 명을 초대해서 매주 수요일 점심 시간에 식사대접을 하며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격려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한국음식 먹을 기회를 제공하니 친구들이 모이고 있고, 좋은 관계쉽을 맺어가는 시간이 먼저 필요해서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얘기들을 합니다. 불교, 기독교, 미래, 공부 등등. 얘기의 주제가 다양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사리야와 므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힘을 얻어 영향력이 커져갈 수 있도록 나아가서는 이들이 그 모임의 리더가 되어서 성경공부도 인도할 수 있도록, 또 그의 친구들이 저희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저희들을 신뢰하여 복음을 듣는 단계까지 주님의 은혜로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지난 6월에 세례 받은 교인들의 성장과정

프를이 지금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경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체험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래

수안대학병원 식당에서 일하면서 순번제로 휴일이 돌아가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에배에 참석하려고 열심히입니다. 그리고 토요 기도모임과 셀 모임 등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제목은 적은 월급이지만 저축해서 2,3 년 후에 개인식당을 여는 것입니다.

겪은 기도하면서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마약단속과 계몽하는 기관에서 일했었는데 나래수안대학 국제학부에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온 교인들과 함께 2달 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교인들 모두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며 교인들 기도해 힘을 더해주었습니다.

녹도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성경공부를 통해서 주님과 QT가 깊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일과 토요일에 찬양 인도자로 섬기기도 하고, 이 선교사에게 김치만드는 법을 배워서 지금은 은혜김치라는 이름으로 김치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사 놀록에 있는 식당 3 곳에 정기적으로 김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김치사업이 주님의 은혜로 잘 발전해서 녹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교회와 선교에 큰 힘이 되는 은혜김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내년 대학 방학기간에 희망하는 회원들과 한국여행 계획 중

센터에서 한글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여러 명이 한국여행을 소원하며, 저희들과 함께 가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이것도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 한국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미리 여행경비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희망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학생들이 한국 교인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해서 한국 그리스도인 가정을 경험하게 하고,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고, 한글캠프에서 함께 했던 한국 분들을 다시 한국에서 만나서 복음에 대해 더 마음을 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8. 교인 대학생 3명에게 생활 보조금 지원(1년 약정)

저희 교회에 나오는 대학생 3 명에게 생활 보조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기로 결정 했습니다. 그들이 학교 생활에서 물질적으로 힘들면서도 주변 친구들에게 영향력 있게 지내는 것을 격려하고 더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써 빛을 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 이름으로 매달 정기적인 후원을 1년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힘있게, 더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9. 센터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센터 임대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센터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건물이 팔려서 이 곳을 새 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사를 해야 하고, 새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면 그대로 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주인이 바뀌어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쓸 수 있고 임대료도 올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0. 차량 구입 현황

저희들의 차량구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함께 하여 정성어린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헌금을 해주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저희 차가 오래되어 고장이 잦아서 빨리 다른 중고 픽업트럭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2 년 전의 태국 홍수 때문에 저희들 생각보다 차값이 너무 많이 올라있어서 구입을 못했고, 저희 태국WEC 정책상 자동차 보험 중에 1등급(자차, 타차, 대인까지 커버되는)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곳 보험 회사에서는 10년이 넘는 차에는 1등급 보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중고차를 사서 차 나이가 10년이 되면 많은 감가상각을 받으면서 또 바꾸는 것보다 새 차를 사서 10 년간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차량헌금으로 해주신 것들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거의 차값에 도달해 가고있어서 내년 초에는 차량구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차량 구입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기쁜 소식을 아직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구입하는데로 바로 기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11. 규진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부탁

규진이가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왔듯이 앞으로도 주님 때문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규진이가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곳 저곳 학교를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싸고 장학금을 주는 대학들을 찾느라고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여러 나라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규진이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합심해 주십시오.

12. 저희 카카오톡 ID를 등록해 주세요.

저희 전화기에 카카오톡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과 카톡이 가능해졌습니다. ID는 *hafane1* 이고, 전화번호는 66-85-622-6013입니다. 카카오톡 ID로 직접 등록하거나 전화기에 저희 전화번호를 저장하시면 카톡 프로그램에서 친구 맺으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카톡을 통해서 가끔씩 격려의 글들이 서로 오고 가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계가 힘들어 하는 환경속에서도 주님의 지킴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늘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해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하네 드립니다.

2013. 11. 20.

최초의 선교사요 순교자인 로버트 토머스!



이건상 장로(크로스선교회 필라델피아 본부장)

평양 대동강 변에 정박되어 있는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고 그 옆 강둑 위엔 제너럴서먼호 격침비가 세워진 지점이 바로 토머스 선교사의 순교지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1840~1866)는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며 순교자입니다. 로버트 토머스는 1839년 9월 7일, 영국 웨일즈 레드너셔주 라이더에서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63년 런던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곧 병사하시고, 상해주재 책임자인 무어헤르 선교사와의 불화까지 겹쳐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청나라 해상 세관의 통역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 와 있던 김자평, 최선일이라는 천주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 조선상황을 전달 받았고 당시 쇄국 정책으로 조선에는 입국하지 못한다는 것과 천주교 박해, 즉 성경을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사람은 참수 혹은 투옥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토머스 선교사는 조선선교를 결심합니다. 1865년 9월 서해안에 도착하여, 약 두 달 반 동안 인근 선진포, 석호정, 만경대 등을 돌며 한국 말을 배우기도 하고 5백 여권의 성경을 나누어주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상에서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1866년 1월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866년 8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즈프지부의 후원을 받아 통역사 자격으로 미국 국적의 무장상선 제너럴 서먼호에 승선하여 대동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당시 조선은 거듭되는 외세 열강들의 침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원군의 쇄국정책으

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나쁜 시기였습니다. 1866년 8월 27일 평양의 한 포구에 중무장하고 정박한 제너럴셔먼호는 조선을 향해 강력하게 통상을 요구하며, 조선의 군인 이현익을 억류하고, 총과 포를 쏘아 사상자를 내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2일에 양각도의 모래 위에 셔먼호가 좌초되었는데, 이때 격분한 조선의 군인들이 평양감사 박규수의 명에 따라 배를 화공으로 공격하여 타고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불에 타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후일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1871년 신미양요 강화도 무력 침략사건이 일어남)

이런 상황에서도 토머스는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도했고 결국 조선군에 체포되었고,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사력을 다해 강가로 성경을 던지며,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단 한 권이라도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때 토머스 선교사도 27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토머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 박춘권이란 사람이 토머스 선교사가 살해되기 직전에 전해준 성경책을 건네받았습니다. 후에 박춘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토머스 선교사의 체포와 처형을 지켜본 20대 청년 황영대는 토머스의 신앙에 크게 동화되어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박춘권 장로와 함께 평양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군중 속에 12살 난 소년, 최치량이 있었는데 그는 던져준 성경 3권을 주워 갖고 있다가 그 중 한권을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그는 그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발라 쓴 것을 최치량이 후에 그의 집에 갔을 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박영식의 집터에는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서게 되었습니다.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왔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읽고 감동하여 예수를 믿고 후에 평양 숭실전문을 졸업하고 미국장로교회 선교사 윌리엄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 한국인 성서전역 위원의 한 사람으로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때 20세였던 이신행은 성경 한권을 얻었고, 그녀는 평양 최초의 여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이덕환은 오랫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로 시무하였습니다. 당시 토머스 선교사는 수많은 성경을 배포 하였는데, 정부에서 그 모든 성경을 몰수하라는 명령으로 성경을 소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태워버리든지, 강에 던지든지 하였습니다.

토머스 선교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금단의 나라에 처음 문을 두드린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영적 불모지였던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찾아와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린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 선교사는 작은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다(요12:24). 그리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1866년 토머스 선교사의 순교가 없었다면, 1882년 조미통상조약도 없었을 것이고, 1884년 알렌 의사의 조선 입국도,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인천상륙도 없었을 것입니다. 토머스 선교사의 희생적인 헌신과 순교가 오늘날 세계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한국교회사의 모퉁이돌이 되었으며, 훗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토머스는 비록 대동강가에서 관원에게 순교 당하여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갔지만, 그는 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태에 있는 아이를 잃고, 그리고 장인을 잃는 3중적인 슬픔, 실의, 불행, 고통을 이기고 다시금 본래의 사명을 깨닫고 조선에 복음을 전한 도전의 선교사였고,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선을 방문했을 때도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했으며, 물론 이때 그는 조선인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성경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 복음을 위해 다시 방문해, 두 번째 평양에 방문하였을 때도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나눠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받은 이들이 한국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희생을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에 입국하는 것이 위험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입국한 것은 그의 희생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거룩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는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였고, 자신을 내어 주어서라도 조선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저에게도 로버트 토머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음에 지금의 저의 연약함을 보며 한 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 그 숭고하고 거룩한 도전과 열정과 희생을 본받길 기원합니다.

참조: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제너럴서먼호 격침 기념비 대동강변)

하나님 포견에 서라

That night God did so.
Only the fleece was dry;
all the ground was covered with dew.

Judges 6:40

친 구

이병익 장로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해마다 연말을 1-2주 앞두고 그 해의 사자성어(四字成語)를 선정 해오는 풍조가 생겼는데 금년에는 박근혜 정부를 부정적으로 풍자하는 도행역시(倒行逆施)가 선정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씩씩한 심정으로 읽으면서 우리나라에도 하루 속히 좀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가 선정되는 때가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포지교(管鮑之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관포(管鮑)는 다음과 같은 옛 중국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절친한 친구의 이름인 관중(管仲)과 포숙(鮑叔)에서 따온 것입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400 여 년 전 중국은 100 여 나라로 갈라져 서로 전쟁을 하던 춘추시대의 중반에 있었습니다. 이때 비교적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제(齊)나라에서 소꿉동무로 자라난 관중과 포숙은 성품은 서로 다른데도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관중은 재능은 있지만 약삭빠른 사람이었고 포숙은 항상 너그럽고 이해성이 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장사도 같이 하고 다른 모든 일도 늘 함께 해오던 중 둘 다 왕궁에 등용되어 포숙은 큰 왕자를 섬기고 관중은 작은 왕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왕이 죽자 왕위를 놓고 두 왕자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서 작은 왕자가 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를 섬기던 관중은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늘 관중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오던 포숙은 새로 된 왕에게 자기 대신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할 것을 간청했고 왕은 그 진정한 간청에 감복하여 자기를 대항하여 싸우던 관중을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친구 때문에 목숨까지 건지고 일국의 재상이 되어 명성까지 얻은 관중은 그 후 포숙의 너그러운 우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했을 적에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면 내가 더 많은 몫을 가지곤 했으나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의 명성을 올리려고 한 일이 도리어 그를 궁지로 몰아 넣었으나 그는 나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시운에 따라 이롭기도 하고 이롭지 않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 번 벼슬길에 올랐다가 그때마다 쫓겨나곤 했으나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시운을 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싸움터로 나갔을 때마다 도망쳐 왔으나 그는 나를 겁쟁이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내게 늙으신 어머니가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한국 고전 신서 편찬회 편 동양 고사 성어에서)

이처럼 친구를 온전히 이해 해주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가 재상이 되는 영달까지 기꺼이 포기한 포숙의 헌신적인 우정을 생각할 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관포지교처럼 친구관계에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

에서 나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는 대목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부터 16장까지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라는 표제를 덧붙일 만큼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뒤에 둘러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 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나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하신 모든 명을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내 나름대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명령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명령을 온전히 다 지키기를 기대하셨기 보다는 그 날 그 다락방에서 그 시점까지 하신 고별설교 말씀 중 예수님이 명확하게 명하신 것만 잘 지키기만 하면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좀 안이한 생각을 하게된 이면에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에 초점을 맞춘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까지 한 제자들도 있었음을 보면 이러한 나의 안이한 생각도 그렇게 지나친 것은 아닐 거라고 자위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 하셨는데 간추리면 “너희도 남을 섬기라”는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후 배반자 유다가 다락방을 나간 뒤에 예수님은 남은 열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신 후 다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반복 하십니다. 곧 이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남을 섬기는 일이나 서로 사랑하는 일에 충실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나의 친구”라 하시며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친구”는 영어의 “Friend”보다 그 영역이 훨씬 좁은 것 같습니다. 이곳 미국에선 손자가 할아버지와 친할 때 할아버지는 나의 친구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이는 버릇없어서 보다는 문화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랫동안 삼강오륜에 젖은 문화 속에서 자라온 우리들에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 중에도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찬양하는 곡이 여러 곡 있습니다. 이중에서 나는 97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 찬송가를 4 절까지 부르고 나면 요한복음을 정독할 때만큼이나 감동을 받은 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인간적인 차원의 친구 관계도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욥의 세 친구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먼 지방에 살고 있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려고 각기 욥을 찾아 오다가 멀리서 욥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이 아파 옷을 찢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욥을 막상 대면하고 나서는 위로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생각 나름대로의 옳은 말로 욥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그 억울한 책망에 항변하는 과정에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던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는 내용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를 위로는 하지 못할망정 도리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위로하고 감싸줄 때가 있고 옳은 말로 권면할 때가 따로 있음을 욥기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욥기를 읽을 때 마다 오래 전에 본 적이 있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하곤 합니다. 아들 다섯을 둔 한 가정에서 두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곤경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가족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언제나 바른 말을 잘하던 셋째 아들이 해결책은 제쳐 놓고 그 사업 실패의 원인부터 들추어내기 시작하자 그 어머니가 “너는 어찌면 그렇게 옳은 말만 잘하나” 라고 역정을 내는 장면이 아직 나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도 “옳은 말도 할 때와 장소가 따로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욥의 친구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 마음이 통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또 자기 자신도 그 말을 믿으면서도 다윗을 것처럼 아끼고 위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왕으로부터 갖은 책망을 들으면서도 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주고 지켜준 요나단을 생각할 때 ‘나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을 여기에 적용하면 “요나단 같은 친구를 얻기 원하면 내가 먼저 그와 같은 친구가 되라”는 말씀이 되는데 과연 나는 내 자신이 먼저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 먹은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다윗의 관계에서 다윗은 처음에는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의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갚을 길이 없었지만 나중에 왕이 된 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일념으로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을 수소문하던 중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내어 그에게 사울의 온 재산을 다 주고 왕의 상에서 먹게 하는 후대를 베풀었다고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당장에 갚지는 못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뒤에 반드시 갚는 마음가짐이 주는 교훈도 가벼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든지 포숙처럼 온전히 이해 해주는 친구나, 요나단처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축복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언제 불러도 늘 은혜가 되는 찬송가 98장 3절을 마음속으로 뇌어보며 이 글을 맺습니다.

내 진실 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소서
날 항상 보호 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믿음의 경주

김철우 장로

용두사미(龍頭蛇尾)란 고사성어가 있다.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말로,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국엔 보잘것없음을 뜻한다. 어떤 분야에서 한두 번 잘하기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무엇을 잘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굵고 짧게 산다’라는 말도 있다. ‘굵고 길게 사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좀 지나친 욕심처럼 느껴지고, 그래도 ‘가늘고 길게 사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서들 하는 말일 것이다.

신앙생활에 한 번 비취 봤다. 먼저, 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굵다는 것은 실하고 좋다는 의미이므로 신실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대부분이 굵었다 가늘었다를 반복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초지일관(初志一貫) 흐트러지지 않고 ‘굵은 삶’을 산 성경인물을 생각해 봤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무엘이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의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는 성경속 그의 고별설교에서 잘 나타난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 앞에서, 그리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느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갚겠다.” (삼상 12:3, 표준새번역)

흔히들 믿음의 경주를 마라톤에 비유한다. 아마도 오랫동안 긴 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했겠지만 사실 이 비유 속에는 오해할 소지가 있다. 오랫동안 달려야한다는 말이 자칫 쉬엄쉬엄 호흡 조절해 가며 달려야한다는 말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2011 년 9 월 Kenya 출신 Patrick Makau가 세운 마라톤 공인 세계기록이 2시간 3분 38초다. 계산을 해보니 이 선수는 100m를 17.6초로 달리는 속도로 줄기차게 2시간 남짓을 달린 것이다.

요즈음 언론을 통해 넘어지는 지도자들을 종종 본다. 그 분들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토록 연약한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인가” 낙망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어느 순간 쉬어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스스로 속도를 늦추었으며,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다.

수년 전 연말 어떤 집사님께 내년에 교회 봉사하는 일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 말씀이 “내년은 저의 안식년입니다. 그 사이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내년 한 해 쉬려고요.”

중학교 한문시간에 배운 청나라 좌종당의 글귀를 신기하게 지금도 기억한다. 學問如逆水行舟 不進則退(학문여역수행주 부진즉퇴), 즉 **‘학문을 하는 것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끊임없이 정진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란 뜻이다. 물길을 거슬러 가는 배가 머무는 것은 이미 제자리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들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은 마라톤이 아니라 100m 경주다.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 달려야 굶주린 사자와 같은 사탄이 우리 등에 올라 탈 틈이 없고, 결국엔 마라톤, 즉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선수들과 거의 같이 달리며 응원하는 코치처럼, 우리들에겐 하나님 되시는 성령코치가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들이 볼 땐 선수들이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것 같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마라톤에도 작전이 있다고 한다. 내 의지를 앞세우면 코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없다. 나의 무지와 자격없음(나의 죄성과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을 인정하고, 작전(인생 행로의 키)을 전적으로 성령 코치에게 맡겨드릴 때, 우린 승리할 수 있다. 골인지점에서 천국 *TV reporter* 가 인터뷰하러 달려들 때 난 숨을 헐떡이며 꼭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딤후 4:7, 표준새번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생각의 비약(飛躍) *Flight of Idea*

부태형 집사

가을도 깊었습니다. 여름밤은 짧았었는데 이제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밤도 길어져 갑니다. 그래서 추야장(秋夜長) 긴긴밤이라 하곤 하지요.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긴 가을밤 잠 못 이루고 잡다한 생각에 빠졌던 옛날이 떠오릅니다. 이제 80 이 가까운 나이에 노안(老眼)이라 밤이면 책의 글도 잘 안 보이고 무릎이 차가워서 앉아 있기 가 싫어 이불 속으로 찾아들지만 한동안 잠은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밤을 지낼 때가 많아 졌습니다.

신경정신질환 중에 생각의 비약(飛躍)(*Flight of Idea*)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의 특징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생각들이 제 멋대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것에서 저것으로 옮겨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파리가 제멋대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환자 자신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가만히 드러누워 어떤 생각에 빠져있다가 문득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게 아닌가 혼자 실소해 보곤 합니다. 이러한 여러 잡념 중 우리교회와 관계있었던 것들만을 몇 가지 여기에 써 나갈까 합니다.

그게 벌써 7-8 년전 일이 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최북단 호숫가에 있는 중 도시 Erie 에서의 35 년간의 의사생활을 끝내기로 하고 새로운 생활터전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분석하는 수고와 장고(長考) 끝에 이곳 Bucks County 를 택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제일 관심거리인 교회의 선택은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하고 추천받는 과정을 거쳐 아내의 판단으로 우리교회가 선택되었습니다.

우리교회에 온지 몇 개월이 지나서 처음 맞이하는 음력설 때였습니다. 설날 교회행사의 하나로 어린이들이 노인들에게 세배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중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다들 나와 앞에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에게 한국식 절을 예쁘게 엮드려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나 보았던 세배하는 모습은 이제 아주 오래 전의 기억속에 있던 것인데 그것을 새로이 보는 것은 나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내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절을 한다는 그 자체는 한국예수교에서는 우상숭배인양 철저하게 금기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 친한 장로 친구는 오랜만에 고향에 가도 자기 아버님이나 어머님에게도 절대로 절을 안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는 것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린애들에게 세배 절하는 예절을 가르치시는 것을 본 후 나는 우리 김풍운 목사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물론 절이라는 풍속도 없고 오직 이슬람교도들이 땅에 엎드려 자기 신에게 절하는 우상숭배만을 보아온 서양사람들이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민족의 문화나 전통적 풍속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스스로가 만들어 대대로 내려오는 예절의 전통이라 나는 믿고 싶습니다.

생각이 또 다른 데로 옮겨 갑니다. 내가 낯선 우리 교회에 새로이 와서 염려되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어울림입니다. 원래 소심하고 사교적이지 못해 낯선 분위기에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내 성격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아브라함 전도회원들의 친절함과 그리고 서로가 비슷한 연령이기에 의외로 쉽게 어울리고 이젠 터놓고 짙은 농담도 하는 사이로 지내고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적 봉사활동에 감명도 받고 있습니다. 또 주일날 어린이들이 아주 명랑하게 떠들며 노는 모습들도 보기에 좋고, 더욱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할 때에는 귀엽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면 멀리 있는 우리 손녀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곤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교회에서 한글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500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최측 임원들이 수고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며칠 후 필라 주간지에 그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대회 주최측은 이날 행사에 단순한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등 판에 박힌 실력 겨루기 행사에서 벗어나 참여와 체험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협동정신을 기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라고 호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인재들이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성 목사님 성경 강의를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열정과 풍부하신 성경지식 그리고 명강의에 이번 학기에는 젊은 성도 청강생이 더 많이 늘어나 교실이 꽉 차고 있습니다. 또 나 자신도 성 목사님이 강의를 준비하시는 수고에 감탄을 느끼면서 학생으로서 강의에 임하는 나태함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에 보답하고자 집에서 약간의 예수과 강의 30 분정도 미리 교실에 가서 예수하는 것으로 성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조금은 이해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포도원의 주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침에 일거리가 없어 빈둥대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고용했습니다. 나중에 저녁이 다 될 무렵에 거리에 나가보니 그때까지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해가 저서 일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을 했을 때 주인이 한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선(善)을 베푸는데 너에게는 악(惡)으로 보이느냐”고 했습니다. 그 주인의 눈에는 저녁 늦게까지도 일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한 톨이라도 벌어서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에게 먹을 것을 사가야 하는 처지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며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주인은 충분히 가슴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 주인이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는 품삯을 시간으로 재지만 나는 그 마음으로 쟁다”였을 것입니다.

생각이 이리저리 헤매는 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flight of idea*”로 붙여 보았습니다. 벌써 가을밤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오래 전에 유행했던 어느 가수의 노래가 떠오릅니다. 나도 뜻 모를 이야기만 잔뜩 글로 남긴 채 이 노래의 분위기에 빠져들며 잠자리에 들어갈까 합니다. *Good night! ~~~*



53 년만에 만난 그 님

신정희 권사

4月 어느 날의 밤하늘은 둥근 달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있었답니다. 김 권사님과 정 집사님 그리고 제가 함께 차를 타고 필라 여성합창단교실로 행하며 아름다운 애기의 꽃을 피우며 갔지요. 정 집사님이 둥근달을 쳐다보며, “달빛에서 보는 내 모습을 보면 가끔씩 예쁘게 보일 때가 있노라”고 자신에게 도취되어 하는 말에 김 권사님도 먼 옛날 회상에 젖으며, “나도 내 여고시절 흠모했던 그이와 모래사장에 앉아 마냥 정담을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 내 모습을 보면 아련히 피어나는 함박꽃마냥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고백했지요. 마침 내가 그 첫사랑이 누구이냐고 묻자 김 권사님이, “김정수씨 라고 마산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분은 고등학교 때 서울 사대부고로 가서 여름방학 때면 집으로 와서 매일 만나며 첫사랑의 애틋한 정을 나누었다”고 얘기하셨을 때 내가 놀랐답니다. 제가 “정수씨요? 우리 언니도 마산중학교에서 서울 사대부고로 갔는데 동기생들을 만났을 때 정수씨가 부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내 말에 화들짝 놀라시는 권사님, “어마어마, 그럼 그 분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마침 제 언니가 이달 말에(4 月 26日) 한국에 나가는데 언니에게 권사님 전화번호를 정수씨에게 전해 주면 되겠네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니가 전한 김 권사님의 전화번호를 받아 든 김정수씨는 곧바로 필라 김 권사님 댁에 통화해서 53년만에 처음으로 또 극적으로 그리운 음성을 주고 받으며 그리운 회포를 풀셨답니다. 몇 달간 여러 번의 통화와 이 메일로 풋풋한 사랑을 나누며 두 분과의 만남의 *D-day*를 9 月 26日 하와이로 정했습니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첫 대면을 한 그분과의 만남은 어쩔 수 없이 50년이 넘는 세월의 흐름 앞에 어색함과 서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로 예전의 *teenager* 시절로 돌아가 순진했던 처녀총각의 풋풋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닷새를 함께 지내고 *Phila* 김 권사님 댁으로 와서 3주간을 신혼기분으로 지내셨습니다.

김정수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게 되는 외로움과 또 김권사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두 분과의 약혼의 언질을 보내셨나 봅니다. 그 소식을 받고 기쁜 마음과 동시에 김 권사님은 고민에 빠지셨지요. 왜냐면 지난 6월부터 8月末까지 유방암 방사선치료와 폐암수술까지 받으셨으니(수술은 *cancer free*로 잘 끝났어요)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그분과 앞날을 약속할 수 있을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몇날 밤의 고민 끝에 비장한 각오로 *e-mail*을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이러 이러한 병이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나의 상황에도 저와 장래를 기약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분에게서 연락이 오기까지 조마조마한 가슴을 쓸어 내리며 긴긴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3일 후에 보내온 *e-mail* 소식 에서 “군자씨가 그런 큰 병을 앓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소. 앞으로 내가 군자씨를 잘 돌보고 모든 것 책임지겠으니 아무 염려마오. 우리 곧 결혼합시다.”라는 감동어린 서신을 받아들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의 얘기입니까? 혼자 오랜 세월 자녀 키우며 자신을 희생하신 김 권사님이 마침내 신데렐라가 되어 12月 28日(토) 두 분은 김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친우 몇 분을 초청하여 간단한 혼인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당분간 한국에 사업체가 있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지내실 터이니 두 분은 건우

와 직녀의 만남처럼 더욱 애틋한 사랑을 키워가시겠지요. 그런데 김 사장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상 것을 추구해 오셨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분이 마음 문을 열고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잘 경청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하여 김 권사님과 결혼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영육간의 결합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느 맛있고 충족한 주일날

김원연 권사

아침 8시, 소원이 많은 남편의 기도가 한없이 길어지는 주일 가정예배가 끝나면 남편이 커피를 갈고 내리면 온 집안에 구수한 커피 향이 퍼진다. 우유 계란을 넣은 메밀가루 팬케이크에 딸기, 블루베리와 볶은 호두를 듬뿍 올리고 시럽대신 꿀을 얹어 뜨거운 커피와 먹는다. 가끔 남편은 "맛있다" 한다. 과묵한 남편의 맛있다는 말은 정말 맛있다는 뜻이다. 때론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하기도 한다. 굶주리던 어린 시절과 세계 곳곳에 기아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식사 후 낡고 후줄근한 옷을 벗고 갈음옷을 입고 머리도 매만지고 얼굴도 단장하고 교회를 향해 작고 큰 길을 달려 교회에 들어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차량안내원이 맞아 주시고 현관에 들어서면 밝고 예쁜 안내원들이 주보를 주면서 따뜻이 반겨주고 많은 교우들과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예배 준비찬양대원들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표정과 몸짓으로 찬양을 하고 드럼, 기타, 오르간 등 재능있는 음악인들의 연주와 어울려 교회 안에 서서히 은혜의 열기가 차오른다. 예배시간 5분전 어김없이 목사님과 기도당번 장로님이 힘찬 걸음으로 강단에 오르신다. 2, 3분은 보통 심지어 10분 넘게도 습관처럼 늦어지는 교회도 흔하다. 질서정연한 예배순서와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으로 마음 문이 열린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된다. 귀에 마이크를 거시고 강당 앞으로 성큼 나오셔서 마치 무릎을 맞대듯 하시고 절절히 성경말씀을 들고 복음적인 말씀을 하신다.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와 진지한 목소리로 과격한 표현이나 경건치 않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강단에서 욕설을 하는 분도 많던데..... 가끔 동영상으로 잊지 못할 예화도 보여 주시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리를 내어 웃기도 한다. 후회와 죄의식, 열등감과 지난날의 회한이 치유되는 시간이다. 걱정 근심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소망이 피어오르는 시간이다. 목사님이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차리신 하늘 밥상을 맛있게 배불리 먹고 영혼이 만족해진다. 현금송은 달콤한 디저트처럼 또 한번 위로를 더해준다.

예배 후 식당에서 늘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내고 맛있는 점심과 목장식구들과 즐거운 친교를 나눈다. 영혼도 육신도 배부름으로 충족해진다.

때로 나는 어린아이 같은 상상을 하기도 한다. 때를 따라 비, 눈, 이슬, 안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예배하는 곳곳에 기도하는 개개인에 오색이 찬란한 하늘의 생명, 은혜, 혹은 사랑 그 무엇이 뿌려지고 영혼에 스며드는 것이 아닐까? 다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을 뿐이 아닐까 상상하며 위를 쳐다보기도 한다.

늙고 병들고 나태해진 육신도 영혼도 치유되어 또 새롭게 한주를 시작할 수 있는 치유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주일이다.

먼저 가신 남편을 추모하며 (추도사)

공문선 권사

1982 년도에 네 식구가 이민 올 때 돈 이천 불과 이민가방에 십자가와 신앙서적 설교테잎만으로 채워가지고 오는 길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언제나 보아왔습니다.

한번은 목수일을 하며 큰절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우상의 전을 수리해서 받은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냐고 그 좋은 수입을 포기하고 나와서 없으며 금식한다는 신념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한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 가족을 돌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두번 개척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일을 보람으로 여기면서 언제나 저희집은 전도해서 교제하는 장소로 쓰이다가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겪으면서도 고요하면 기도하고 외로울 땐 찬송하며 힘들고 괴로울 땐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굳세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기에 자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마음에 새겨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라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작별인사를 대신합니다.



천국에 간 남편의 1 주기를 추도하며
(천국에 있는 당신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냅니다)

공문선 권사

우리 곁을 떠나간지 벌써 1 년이 지났군요. 그리도 봄을 좋아하더니 만물이 소생하며 꽃피는 계절이 돌아오니 더욱 생각이 납니다. 뜰에 핀 꽃들을 대니가 꺾어다 할아버지 방에 정성껏 꽂아놓던 기억이 새로워 꽃을 보니 새삼스레 아련한 그리움에 젖어 듭니다.

당신에 떠난 후에 주위에서 날 보고 냉정하다는 등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등 여러 소리가 들렸지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 언제 오시려나 오늘밤에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다며 늘 기다리던 당신을 옆에서 보았기에 이제는 바라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굳건히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에게 감사할 것은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신앙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며 황금보다도 귀한 유산으로 물려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유산을 잘 지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당신의 뒤편까지 내가 기도할게요.

당신과 함께 지나온 48 년 세월을 생각할 때에 힘들고 고통스럽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알뜰하고도 자상스럽게 잘해주던 기억만 간직하려 합니다.

요즘은 아들과 동생들과 함께 골프를 치는데 시원한 잔디밭을 누비고 다니며 옛날에 당신과 함께 다정하게 다니던 그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며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전날에도 골프장에서 아들과 함께 당신 생각을 할 때에 아버지 좋아하시던 낚시 다니던 일이며 골프 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푸른 하늘에 떠오른다면 눈물 짓는 모습을 보고 나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효성이 지극한 아들, 며느리들이 꼼짝이 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외로운 마음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4 월 어느 날 잠 못 이루는 밤에



Good Neighbor 좋은 이웃

-추억의 여행-

부인옥 권사

때는 1980년대 중반입니다. 홀로 한국 여행을 떠나는데 공항에 전송나온 Mrs. Kim, Park, Woo, Yoon이 부러워하면서 “좋은 이웃 만나서 평안한 여행 되세요” 하시며 손을 흔듭니다. 노스웨스트 비행기는 대만원이었으나 제자리는 중간이고 옆자리는 비어있고 창가에는 미국인이 앉아있습니다. 암전하게 몸사려 앉아있는 저에게 그 창가에 앉은 손님은 친절하게 두 자리 모두 편하게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뉴질랜드에서 16년째 비즈니스중이랍니다. 뉴질랜드는 공해가 없는 대자연에 바다낚시 등등 자량이 대단합니다. 듣는 중에 저에게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림처럼 떠오르는 상상속의 뉴질랜드 아름다움을 바람, 나무, 하늘, 땅, 새들등 그림처럼 그려보면서 꼭 나중에 여행하리라는 생각을 넣어준 그 분, 공항에 배웅나온 친구들 바람대로 참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손아래 동서가 있습니다. 그녀는 효성이 지극하여 자랑스럽게 효부상을 3개나 받았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불효한 큰며느리라는 자책감에 늘 괴로웠습니다. 평생 불효자라는 생각과 질투심 때문이었을까? 늘 생각은 고향을 떠난 불효한 생각과 회개 그리고 괜한 질투심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듯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새벽기도 중에 하루는 “어머님께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음성이 들려 저는 고국에 계신 노모님을 모셔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도 동서처럼 살아계실 때 어머님을 모시려니 당신은 막내와 지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비둘기처럼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제주 시택의 분위기는 예수 믿는 저를 무슨 행사가 있든지 늘 죄인느낌 들게하며 늘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고국에 도착하여 기회가 없어, 아니 용기를 내지 못하여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 하다가 아무도 몰래 살짜기 살짜기 새벽기도를 다니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밤마다 아침이면 어머님께 예수님을 전하리라 다짐하였지만 시나브로 40여일 시간은 흘렀지만 어머님 수종드는 일조차 제 몫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천금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잠깐 동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머님께서 혼자 계신 틈을 타서 죽으면 죽으리라던 에스더처럼 쫓아내면 쫓겨나리라는 굳센 마음으로 어머님께 예수님을 소개하리라는 용기와 힘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담대하게 어머님께 “이제 사실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떠나시면 다른 세상도 있습니다” 전에는 해마다 명절이면 어머님 뵈러 고향을 다녀오는 것으로 효도 다한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효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머님과 저만이 간직한 비밀스런 성령의 역사는 찬송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마치 지하교회와 같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좋은

이웃.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디트로이트를 향하는 노스웨스트는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공기도 탁하고 몸부림치며 큰소리로 울어대는 아이를 안은 젊은 아빠는 애 다루는 솜씨가 너무나 서툴러 보입니다. 주위 분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제가 자리를 바꾸어 그 아이 옆에 앉아 아이를 제가 봐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빠는 너무 기쁜 표정을 하며 프린트된 몇 장의 페이지를 건네는데 내용은 입양 가는 아이였습니다. 추가된 설명에 “아이는 이유없이 우는 아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이 아빠는 양부모에게 전하는 일을 맡은 유학생 이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은 저는 아이를 달래다가 기도로 변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이는 울기도하고 웃기도하고 편안하게 잠들기도 하며 앵커리지까지 저를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아이와 학생은 로스앤젤러스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20대쯤 잘 자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이웃 중에 입양아를 잘 키우는 부모와 아이가 한 분씩 계신 것이 떠오르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득히 그 여행을 생각하며 그 학생과 아이에게 좋은 이웃이었나 봐요.

자리에 돌아와 앉으니 70대 중반쯤 보이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을 건넵니다. “혹시 권사님이세요” 이북 사투리 억양의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답니다. 저는 “서리집사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본이 안되고 세상을 어지럽혀서 예수 믿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곳곳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혹시 권사님이시냐고 물으셔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기쁨으로 예수님 소개하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서리집사인 저는 또 한 번 좋은 이웃이 되어버렸지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하신 주님 말씀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지요.
할렐루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25:40)

일곱 달

박순천 권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BCP 부엌 부대에서 7달(한달은 연습)동안 봉사해야 할 영장이 드디어 내 코 앞에 떨어졌다. “훈련 잘 받고 내년엔 다시 뵙겠습니다.” 시온찬양대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무거운 어깨와 쓸쓸한 마음으로 찬양대실을 나왔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던 내가 이제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수 많은 육체의 가시들을 품고 사는 내가 어떻게 사오백 명의 대중음식을 책임지고 해낼 수 있을까? 날마다 걱정 고민 하며 지나가는 시간들을 꼭 붙들고 싶은 마음으로 1년을 보내었던 나였다.

The day, 6월 첫 주일, H 권사님의 지도 아래 부엌훈련이 시작되었다. 부엌에 가스불 켜는 것부터 시작해서 창고에 있는 물품관리, H-Mart에 주문해야 할 식품들, Sam's에서 구입해야 할 식품들, 떡 주문하는 일, 국과 밥은 각각 몇 솥, 김치는 몇 tray, 커피와 물은 몇 통, 앞치마 세탁, 행주삶기, 수저소독까지..... 처음에는 너무 어리벉벉해서 “oh my head” 이었다. 머리 복잡한 한 달이 정신 없이 금방 지나가더니, 혼자서 해야 하는 가슴 두근거리는 7월도 그럭저럭 사고 안치고 잘 넘어갔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여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치우고 닦고 청소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은 정말 복된 시간들이었다. 우리 부엌에는 도사들도 참 많다. 그 중에 일곱을 소개해보면 칼질 잘하는 도사, 음식 잘하는 도사, 밥 잘 하는 도사, 힘 잘 쓰는 도사, 말 잘 하는 도사, 잘 드시는 도사, 바닥 잘 닦으시는 도사,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다.

부엌에 들어오는 목장식구들의 복장과 신발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날 하나님께 얼마나 봉사할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높은 구두 신고 미니스커트나 실크 비단옷을 입고 바비인형 처럼 일하는 멋순이 마님들보다 비록 때 묻었지만 낮은 신 신고 편안한 복장으로 일하는 열순이 마님들이 더 예쁘게 보인다. 그날 부엌전쟁도 군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워주느냐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 왔다갔다 보초만 서다가 살짝 사라져 버리는 뺨돌군들 때문에 전쟁이 힘들게 끝나는가 하면 캡틴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땀 흘리며 싸워주는 수철군들로 인해 그날 부엌 전쟁은 승리와 기쁨으로 빨리 끝날 수 있다.

빌2: 25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 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전쟁이 끝나려면 앞으로 두 달, 도우미 군사들도 조금씩 후퇴하며 힘들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비하고 계셨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동역자 한 분을 보내주셨다.

베이글 당번들은 지금쯤 도착했을까? 깜박하고 냉동실에서 내놓지 않은 마늘, 생강, 옥수가 넘쳐 가스불이 꺼지지 않는지, 물에 담가 놓은 미역은 잘 풀어졌는지..... 이번 목장 식구들은 너무 약해서 제 시간에 EM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 이제 안하고 마음놓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가끔 나한테서 진동하는 마음 양파 냄새 때문에 약간 거북할 때가 있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시작했던 부엌봉사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되었다. 육체의 가시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을 땀 사도 바울이 쓴 성경구절을 생각하며 견디어 낼 수 있었다.

고후 12:7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고후 12:9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많이 모르고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더 낮은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우심이 늘 나와 함께 머무르신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였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과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나의 연약함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 12:6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동안 온갖 음식찌꺼기와 더러운 기름에 얼룩져 있었던 내 마음의 그릇이 부엌도가니에서 강한 세제(하나님의 말씀)로 일곱 달 동안 잘 닦고 씻겨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기를 바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은쟁반은 못되더라도 비록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쳐서 금이 가고 상처나고 이가 빠진 연약하고 못난 질그릇이 되었다라도 부엌 주방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캐비닛 구석 안에 넣어두셨다가 가끔 끄집어내서 “그래도 쓸만하다”하시며 가끔 사용해 주신다면 감사해야 될 것 같다.

내 고향 시온 성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기뻐해야 하는게 정상일 텐데 무언가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하나 뚫린 것처럼 허전하다. 그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일했던 분들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짝~ 해지는 것 같다. 음식 만드는데 손이 짧았던 나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함께 열심히 봉사해 주신 여러 동역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함께 일하면서 나의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그분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는지... 그랬다면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전혀 기억되지 않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모든 분들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매주 이름도 빛도 없이 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 수고해주신 K집사님 부부(드릴 사건), W집사님 부부(누테넌트), 나의 어깨가 되어주신 별마담 J 집사님(대위),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신 H 권사님(캡틴), 매주 베이글 배달해주신 P집사님(PFC), 앞치마 세탁해주신 K집사님(E5), 큰 행사때마다 힘써 도와주신 새교우부 마님들(사건), 주일아침마다 일찍 오셔서 아들과 함께 식탁준비 하시며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K장로님(제너럴), 가끔 만나면 등 톡톡 두드려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고 용기와 힘을 주신 여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린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곱 달 잘 수행하고 제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계급장(권사자격증)까지 따게 해주신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고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계미경 권사

사랑하는 예루살렘찬양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미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김주영 집사님과 이화기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 함께 정성껏 만들어 선물로 주신 CD 를 들었습니다. 많은 곡을 넣으셨더라고요. 그 중에 21 번 곡 “음성”은 정혜정 권사님께서 solo 연습 하셨다가 부르시지 못한 곡입니다. 그 곡을 들으면서 저희 찬양대가 그 곡을 부른 주일날, 정혜정 권사님이 쓰러지시고 정확히 일주일 되었던 그 주일날이 생생히 떠올랐고 다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희 찬양대는 눈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 주간 내내 정혜정 권사님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주님을 찾았고 믿음이 약한 저희는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음성” 이라는 찬양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고 찬양 중에 눈물바다가 되어 어떻게 찬양을 끝냈는지 모릅니다. 그때만큼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한 마음이 된 적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한 가지 정 권사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과 함께 다시 찬양대 가운을 입으시고 함께 사진을 찍으신 정혜정 권사님의 모습을 CD cover에서 볼 때 주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찬양대 여러분, 새로오는 2014 년에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 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Ps, 아참, 자정예배 때는 못 뵈는 것 같네요. 가족들과 함께 EM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거든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음성 -신상우 곡-

귀에 익은 소리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눈에 익은 모습들로 내 생각을 채우며
향방 없이 살아감에 스스로 서러워 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그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랑 없이 살아감에 스스로 서러워 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주 음성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그 음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진짜 사나이, 진짜 크리스천

이우현 집사

요즘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방송이 있다. 몇 명의 연예인들이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실제 군인들과 함께 군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록 재미를 추구하는 예능이긴 하지만 군생활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려 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대 이야기’ 이는 한국 남자들의 대화에 빠질 수 없는 대화소재이긴 하지만, 또 호불호가 뚜렷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떤 이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이 군대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루어 주는 덕분에, ‘군대’를 경험했던 많은 남성들에게는 옛 향수를,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허풍쑈름으로 들리던 이야기가 왜 남자들이 열을 올리며 목소리를 높이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납세, 국방, 교육, 근로. 그 중에서 ‘신성한’이란 형용사를 쓰는 건 아마도 ‘국방의 의무’가 유일할 것이다. -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군생활을 접한다. 그리고 그 대다수의 군대 경험자 중의 절대 다수가 육군에서 군복무를 한다. 이런 까닭에 한국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는 당연히 육군의 이야기다. 나는 해군이였다. 한국 내 소수민족이다. 따라서 나같은 소수민족들은 마치, 군 생활을 하지않은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처럼, 생소한 ‘육군의 군대 이야기’속에 끼어들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기억이 새로운 것은, 나의 장인어른과의 첫 대면이다. 나의 장인께선 한국 육군의 고위장교 출신이시고, 내 아내를 포함해서 세명의 딸들을 두고 계시다. 군 면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장인께서는, 딸들의 남자 친구들에게 첫인사를 받으실 때면 군 생활에 대해 묻곤 하셨다. 혹이라도 남자 친구들이 군면제를 받았거나, 그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아주 짧게 대체한 친구들에겐 매우 건성적이고 마땅치 않은 짧은 인터뷰로 첫인사를 하셨다. 하지만, 난 장인께서도 흡족해하실 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고 이는 상당한 플러스 점수로 작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육군이 아니었기에 서로의 군대 경험 또는 경력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군대이야기 부분에서의 고요한 침묵의 시간... 그리고, 짧은 담소후, 쉽지않은 자리를 비교적 어렵지 않게 마치고, 교제를 허락 받을 수 있었다. - 내 육군 출신 동서는 4시간 가까이 꼳꼳한 자세로 ‘군대 이야기’를 해야 했던, 그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아직도 한다.

다시, 각설하고. 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연결해 볼 수 있었다. 첫째가 변함없는 진리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가 하겠는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영적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용사된 나의 삶이 어떠한가 하겠는가에 대한 것이다.

<Part 1>

최근에 이 프로그램이 반갑게도 해군에서의 생활상을 다뤘다. 특별히 제2함대라 불리는 서해

바다와 NLL (Northern Limit Line)이라 불리는 해상 군사 분계 지역의 긴장감을 그렸다. 이 지역과 ‘참수리’라 불리는 고속함정은 20여년 전 실제 내가 군생활을 했던 지역이며 군함이었기에 감회가



새로웠다. 서해 연평도와 대청도(백령도) 지역은 대한민국의 본토에서는 너무 멀고, 북한 땅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이다. 다음은 진짜 사나이 방송 중 한 장면이다. <깜깜한 한밤 중, 곤한 잠을 자고 있는 병사들을 깨우는 갑작스런 경보음이 울린다. 긴급히 군함이 출항하고, 곧이어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친구’의 노래가사처럼,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방향이 대한민국 영해이고, 어느 쪽이 북한의 바다인지 조차 가늠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있다. 자칫 방향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단 몇 분 이내에 북한 영해로 들어가게 된다. 그 이후는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배에 타고 있는 병사들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만 수행한다. 그들중 누구도 함장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도 없고, 그가 가리키는 방향에 의심을 품는 사람도 없다.>

망망한 대해, 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는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을까? 군함을 포함한 선박에는 ‘레이더’와 ‘GPS’라는 중요한 두 장비가 있다. ‘레이더’는 인간의 시력을 넘어서는 곳에서 움직이는 물체나, 고정된 물체를 보여 주는 장비이고, ‘GPS(내비게이션)’는 현재의 내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이다. 이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직접 받는 장치이기에 어느 한적한 바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이러한 전자장비는 어느 때든지 고장 등의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의 최첨단 기술을 가진 군함이라 할지라도 항해사는 ‘천문항해(天文航海)’라는 항해법을 숙지해야만 한다. 이는 하늘의 해, 달 또는 별들로 나의 위치를 알아 내는 항해법이다. 항해사는 하나님께서 우주에 만 들어 놓으신 이러한 천체들을 가지고, 요상하게 생겼지만 매우 간단한 원리의 육분의(Sextant)라는 기구와 몇몇 수학적식을 사용해서 나의 위치를 측정한다. 또, 나침반(Compass)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 나침반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지구에 새겨놓으신 ‘자기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을 받은 기구다. 이렇게 현재 나의 위치를 알고, 가야 할 방향을 알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신자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셨다. 변치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육분의를 사용해서 나의 위치를 알아내는 항해사처럼, 성령께서는 나의 나뉜 것과 내가 서있는 곳을 돌아보시게 하신다. 또 나침반이 항상 남북을 가리킴을 이용해서 가야할 길을 알아내는 것과 같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의 길이 어디인가를 보여 주시며,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주신다. 비록, 내 인생의 앞날이 캄캄한 어둠 속에 항해하는 배 같을지라도 선장되신 예수님께 항해를 맡기고, 내게 맡겨주신 내 직분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 내 인생의 배는 내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금의환향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담 하나>

간혹 등대가 어두운 밤바다를 밝혀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비록 등대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 드넓은 바다를 등대의 불빛으로, 또는 사람이 만든 어떤 빛으로 비추어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등대에다 빛을 발하는 목적은 이곳에 암초, 섬, 바위 등 항해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니, 이리로 오지 말라는 것이다. 즉, 안전을 위한 불빛이다.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너무도 작은 불빛이기에 세상을 비추기에는 터무니없다고 하더라도,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알려주듯,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는 작은 빛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작은 삶의 빛을 보고 어둠에 방황하는



영혼이 예수님께로 항로를 바꿀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자.

<Part 2>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이가 꽤 있는 연예인들이 젊은 군인들 틈에서 힘든 병영과 훈련을 받아내는 장면을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비록 카메라 속의 진실을 시청자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듯 보인다. *tv*속 연예인 "진짜 사나이"들은 일주일간 한 부대에서 녹화를 하고, 그 녹화분을 수회에 나누어 방송한다고 한다. 비록 *tv*에서 보이듯이, 그 연예인들이 진짜 군인들처럼 훈련 받고, 생활하며, 그 모습이 용맹스럽고,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진짜 군인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즉, 그들은 일주일 짜리 군인들일 뿐이다. 만일,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은 없을 것이고, 방송용 군인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터엔 오직 진짜 군인들만이 투입되며, 진짜 군인들이 적군을 무찌르는데 앞장설 것이다. 진짜 군인은 일주일만의 군생활과 짧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없을뿐더러, 자유분방한 사회문화와 혼합된 속에서는 더더욱 만들어질 수 없다. 진짜 군인은 날마다의 훈련과, 군법의 강한 규율 하에 몸과 정신이 단련된 사람들이다. 강한 군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혹 착각할 수 있을지라도, 전쟁터에서는 진짜 군인과 가짜 군인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연예인들의 일주일짜리 군인신분은, 흔히 표현하는 '선데이 크리스천'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 훈련되어지지 않은 무늬만 크리스천은 전쟁터에서 배제되고, 승전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도 초대되지도 못 할 것이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 역시 '선데이 크리스천'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도전을 다시 받게 된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게 맡겨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에 임할 때, 나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가며, 영적인 전쟁터에서 대장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승리의 개선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많이 표현하신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 존재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의 병전에서 "군대는 백년 동안 쓸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단 하루도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셨다. 백년 간 쓸 일이 없음에도 준비를 소홀히할 수 없다면,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에 맞서야 하는 우리는 정말이지 매 순간 순간 깨어 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이 가능함을 인정하며, 그 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한다.



봉사와 섬김

우형원 집사

교회는 헌신된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운영된다. 일할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것이 교회 봉사이다. 교회 봉사는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꾼, 철저한 자기 헌신, 올바른 성도 선행해야”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교회는 헌신된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으로 운영된다. 일할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것이 교회 봉사이다. 교회봉사는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봉사를 할 수 없다. 아무리 사회에서 지위가 높다 해도 일단 교회 봉사 현장에서는 철저한 자기헌신, 포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회 봉사는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이자 교회의 핵심적인 운영원칙이다 라고 강조하는 글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바른 성도이어야 한다. 즉 먼저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헌신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먼저 그 사람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 봉사자도 봉사자 이전에 한 명의 예배자여야 한다.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자가 진정한 봉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임목사님 설교 중에서)

또한 오늘날 생활이 고급화 되어가는 삶의 패턴 속에서 교회 내의 봉사활동이 자꾸 시들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돈은 선뜻 내놓을 수 있어도 천한 봉사는 안하겠다는 태도, 고급스러운 예배 시간만 찾는 태도, 대접만 받으려는 태도는 성경의 섬김과 헌신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봉사와 섬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늘 새롭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분량에 맞는 봉사를 하여야 한다. 봉사의 분량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능력과 컨디션에 맞게 조절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이 사역자들의 부족으로 조정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미 과중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일을 맡기다 보니, 봉사의 한계를 넘어서 짓눌리는 경우가 많다. 위원장은 이 일에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봉사를 감당하다 보면 자연히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 어떤 봉사는 생색내기 좋고, 어떤 사역은 덜 힘들고 봉사의 모양도 좋다. 하지만 힘들고 생색도 나지 않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 봉사에 대해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한다. 교회의 봉사는 그야말로 값없이 헌신하는 것이기에 힘든 것 일수록 더 귀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중요한 직무이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작은 기도일지라도~~!!

이호신 집사

10 년을 이웃하며 살던 매튜의 가정~~! 매튜가 두차례 연달아 당한 교통사고로 허리를 많이 다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지금 9 살인 내 딸아이 해나가 뱃속에 있을 때 풋풋한 신혼의 향기를 날리며 이사온 매튜와 할리~~! 이들에게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고 급기야 할리는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해나가 태어나고 해나를 볼 때면, 할리는 항상 "나에게도 이런 아이가 있다면~~!" 이라며 말끝을 흐리곤 했다.

매튜는 선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고, 할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전형적인 뉴요커였다. 아이를 소망하는 할리를 보며 생각날 때마다 이 가정에 귀한 자녀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 정말 작은 기도였다. 그리고 할리를 볼 때마다 기회만 되면 야곱의 예를 들며 예쁜 아이가 찍혀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권고했다, 안 되는 영어에 몸짓을 섞어가며~~!!

그 후, 이 부부는 입양을 결심하고 귀한 딸 마야를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았고, 마야를 가슴으로 낳은 지 3 년째 되는 해에 자연임신이라는 기적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셨고, 조딘이라는 귀한 둘째딸이 이제 3세가 되었다.

우리 가족이 여름 여행을 가기 바로 며칠 전, 해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는 길에 집 앞에서 매튜를 만났고, 오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매튜는 무엇보다도 할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으며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일 경우 *why me?*를 되뇌일 사람이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면서 더 나쁜 상황이 아닌 것에 감사해 한다며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라며 기쁨으로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할리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며 갖게 된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 같다며 참으로 세세한 이야기까지 내게 전해주면서, '호신, 네가 할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귀한 아이들까지 선물 받는 큰 은혜를 너희와 이웃한 이 집에 살면서 누릴 수 있어서 참 좋았어. 그리고 고마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가슴이 울컥해졌다. 그리고 매튜와 헤어지고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 하나님은 정말 작은 나의 기도도 기억하시는구나. 부족한 나를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 주셨구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준 매튜와 할리의 가정은 3개월여 후에 이사를 갔다. 그래도 가끔씩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잠간이나마 기도하게 된다.

기도 가운데 끊임없는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헌신

우영란 집사

생활 가운데 헌신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아름다운 삶을 누리려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내 마음 속에 일어나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헌신을 불러 일으키고 헌신은 더욱 큰 감사를, 큰 감사는 더 큰 헌신을 낳는다는 것을 부엌 봉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남편의 권유로 주방봉사를 시작해서 이제야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복 있는 삶이란 이런 것 아닌가? 충실한 삶을 사는 자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짐을 생각할 때, 감사가 없으므로 헌신이 없고 그래서 생활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면 오늘 내 삶의 괴로움을 내려놓고 대신 감사를 집어 들어야 한다. 그것이 풍성한 내일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시

사랑하는 내 교회

허옥선 권사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정다운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 한 뜻으로 일하지요.

우린 힘들지 않아.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모두 힘차게 찬양하며

우린 기도하지요.

주님께 영광 영광 돌리며.

아 주님의 은혜로써

우리 모두 하나 되네

내 교회 내 사랑하는 내 교회.

세상에 등대 되리라.



늘 당신을 바라며

김진희 권사

주님!

그래도 살아 갈만한 곳이 이세상이라는데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기운이 세상을 감싸고
습한 날의 무거운 침묵 같은 육신은
매서운 바람과 맞서는 외로움이 됩니다.

그래도 살아갈 만한 곳이 이세상 이라는데
퇴색되어지는 시간 속에
영혼은 서럽고
무더진 육신은
시린 시간들을 앞세우고
아픔 따라 범람한 눈물샘은
삶의 곁을 따라 흐르는 작은 강이 됩니다.

그래도 살아 갈만한 곳이 이세상 이라는데
무성한 가시덤불 속에서
찌르며 찢린 아픔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 힘쓰러운 풍경으로
내 작은 영혼은
척박한 사막이 됩니다.

눈물 빗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찬란한지...
금강석보다 빛났습니다.
눈물 빗줄이 찬란한 것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늘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소망..하늘사랑 가슴 가득 채우며
그래도 살아갈만한 이세상
하늘세상 향하는 길목 한 켠에서의 나의 삶 속에
주님은
허기진 나의 절실함이 됩니다.



들꽃 좋아하는 진희

사진으로 보는 2013 년



신년예배



TEE 성경공부 수료식



성경통신 수료식



초등부 성경필사



박반석 목사 안수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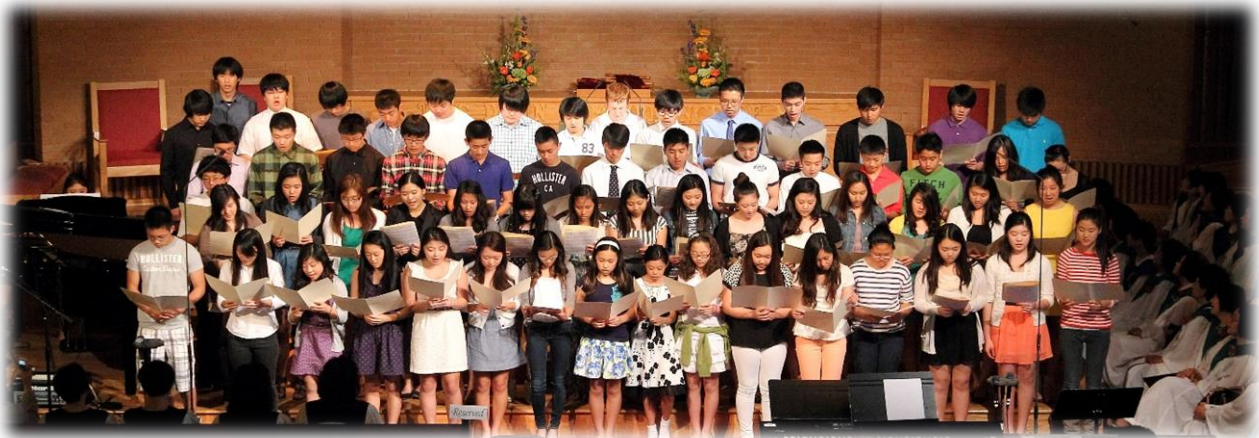


박모세 군 찬양



부활주일





어버이주일



전교인 운동회



상반기 입학식





교육부 졸업식

장학금 수여식





가족수양회



창립 39 주년 기념주일



하늘의 기쁨



추수감사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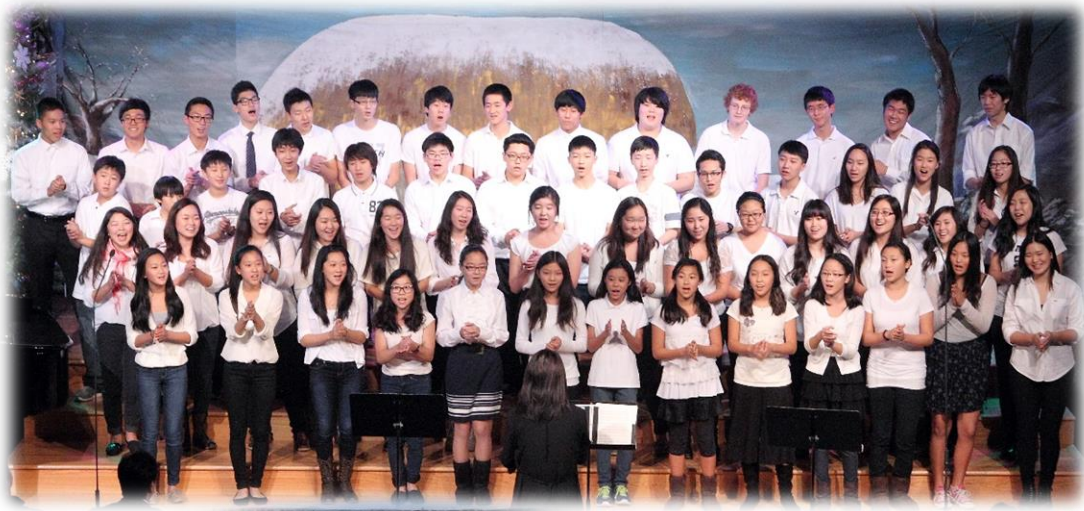
하반기 성례주일(입교, 세례, 유아세례)



새교우환영회







성탄주일



새가족



강인성/문혜숙



김지웅/지영 민제, 도현



조미영/Rodrigo 민서, 지민



정상조/양기순



한두석/미정 상헌, 세라



박구미 세라, 제이



심민철/최성혜



최경희



서영대



신흥섭/금복



김동민/정은주 아린



이덕용



김지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엡 5: 20)

편집후기

할렐루야, 이제야 끝이났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부족하고 잘 준비되지 않은 저희 편집부를 주께서 써 주신것 만도 감사할 일인데 벌써 불평불만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121:1~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에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작은 섬김으로 얼마나 귀한 것들을 느끼게 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는 사랑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 정말로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씨앗으로 우리 교회가 한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서로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가 뿌리는 씨앗은 아주 작지만 이 믿음의 글들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은밀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조용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못갔을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담임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옆에서 늘 걱정과 격려해 주시는 김건엽 장로님,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도와주시는 김경미 간사님, 아름답게 출판을 담당해 주시는 *Entourage Year Books* 출판사 조규성(Edward Jo) 집사님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편집부원님들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프신 가운데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원고를 주신 이병익 장로님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매해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감동시키신 부태형 집사님 올해도 쓸 것이 없다하시며 미안해 하셨는데 결국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한번도 말한적 없지만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기도로 응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또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글로 마음을 전할수는 없지만 성령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함과 기도를 느끼게 해 주실줄 믿으며 모든 감사와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전합니다.

편집부 박미화 집사

교회로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김풍운(pwkim529@gmail.com)
부 목 사 성종근(교구/행정/청년) 이승우(교구/교육/찬양) Thomas Chang(EM/선교)
교육목사 박반석(고등)
전 도 사 성미경(유아) 양선배(유치) 최세훈(중등)
사무장로 이영석 양원호 김철우 최환식 김건엽 안병민
은퇴장로 오상백 김영옥 이병익 이건상 조 승 김내섭 김성우 최현진 윤영석 김건재 장 철
협동장로 김정인 조정환 김용완 박찬국 김경범 허우강 김인출 이규성 양찬모 조성은 김경철
지 휘 김주영(1부) 윤희진(3부)
반 주 유선희(1부) 황수진 김미혜(3부) 김연숙(수요) Holy Chamber(3부)
간 사 김경미(사무) 조정제(관리) 김용주(통역)

집회시간안내

구분	내 용	시 간	장 소
예배	주일: 한국어 1부	오전 8시 30분	본 당
	2부	오전 10시	소예배실
	3부	오전 11시 30분	본 당
	EM	오전 10시	본 당
	유아/유치부	오전 11시 30분	유아/유치부실
	초등/중등/고등부	오전 11시 30분	교육관/소예배실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청년부사무실
	수요찬양	오후 8시	본당
기도회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시	본 당
	함심기도회(매월 첫 수요일)	오후 8시	본 당
	금요기도회(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유치부실
성경공부	목장모임(매월 둘째주)		가정에서
	청년부 성경공부(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청년부사무실
	영어회중(매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소예배실
	고등부(매 주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중등부(매 주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초등부(매 주 금요일)	오후 8시	교실
정기모임	월례회(여: 첫 주일, 남: 셋째 주일)	오후 2시	각 전도회별
	위원장회의(셋째 주일)	오후 2시	각 위원회별
	제직회(분기별)	오후 2시	본 당
	당회(넷째 주일)	오후	당회실

본 교회가 돕는 분들과 단체

파송선교사 김명수(케냐) 장택규(WEC)
협력선교사 유병국 (WEC국제본부) 장석창(태국) 이남행(중국) 이상길(러시아) 장영호(GP 한국본부) 이춘심(네팔) 박용현(네팔) 이준교(이집트) 최명온(케냐) 최용기(필리핀) 김우영(몽골) 전영구(도미니카공화국) 황기수(캄보디아) 한준수(태국) 하홍중(태국) 허태영(튀니지) 박민하(한국GBT) 정훈기(GMC) 강민숙(일본) 심재원(모리타니아) Chris Brown(아제르바이잔)이영주(이집트)
협력 단체 중동선교회 필라기독방송 미주크리스찬신문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찬 타임스 오늘의양식 동부개혁신학교 뉴비전청소년센터 크로스선교회 GPM 선원선교회(필라) 밀알선교단(필라) JAMA 한국군선교회 신바람낙도선교회 JOY선교회 Delta Community Langhorne Garden(양로원사역) YESDaddy(고아원사역) 여호와넷시의집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만남의 장이며

믿음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말씀과
생활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며

믿음의 소리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공동체임을
확인케 하는 나눔의 장이며

믿음의 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웃을 향한 복음의 소리입니다.

발행인: 김풍운 목사

출판사: Entourage Year Books 조규성 (Edward Jo)

편집인: 김건엽 장로

편집위원: 박미화, 오정선미, 유택환, 이은숙, 김경미

